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시간선택제 일자리 · 고졸채용 · 청년인턴

2014.12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목차

I PART

시간선택제 일자리

1. 시간선택제로 10년의 꿈을 이루다! 6
2. 행복한 동행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
시간선택제 일자리 11
3. 나를 찾는 4시간의 행복 17
4. 꿈꾸는 자만이 춤출 수 있다 22
5.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간호사 27
6. 삶의 빛을 밝혀준 시간선택제 근무 34

II PART

고졸채용

1. 이 시대 모든 고졸들에게 희망을 42
2. K-POP STAR? NO, K-WATER STAR! 47
3. 열+아홉 살 인생 54
4. 그리스의 기회라는 석상을 아십니까? 60
5. Challenge & Chance 고졸채용 65
6. 흔들리며 피는 꽃 70
7. 사회란 미로 속 나만의 길을 찾다 75
8. 원석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곳, 한국광물자원공사 82

III PART

청년인턴

1. 전반전을 마치고 88
2. 철없이 행복한 인턴이 근무경력 5년차
선임이 되기까지 95
3. 880시간의 선물 100
4. 제2막을 위한 제1막의 화려한 마무리, 청년인턴 105
5. 취업준비생 끝판왕의 한국전력공사 입성기 111
6. 청년인턴, 시작점에서 목적지를 찾다 116
7. 철도기관사를 꿈꾸었던 청년,
청년인턴제로 진짜 철도기관사가 되다!! 122
8. 내 청춘의 온도, 열정°C 127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 PART

시간선택제 일자리



1

시간선택제로 10년의 꿈을 이루다!

정○○/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일·가정·학업, 세 마리 토끼를 쫓다

저는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및 활용촉진과 건설교통 신기술심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설교통 분야의 공공기술 개발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연구개발의 방향을 잡아주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넓은 시각과 전문성이 끊임 없이 요구되고 있었고, 석사를 마치고 입사한 저에게도 관련 분야의 교육과 능력 개발은 지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위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유연근무나 시간선택제 근무와 같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

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수업이 개설되어있는 전문대학원에 원서를 넣게 되었고, 3번의 도전 끝에 2005년 3월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로 잦은 야근이 이어지며, 수업에 지각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수업 내용도 잘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결국 다른 동기들보다 늦은 2007년 8월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는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었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학위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입사 3년차였던 제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박사논문은 제 생활 속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일 또한 제 삶에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2007년 말 우수직원 표창을 받고 2008년에는 승진을 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즈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이어지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2009년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우리 부부에게 육아라는 또 하나의 큰 짐이 생기게 되었고, 아내의 육아 휴직이 끝날 무렵 아이는 첫돌이 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 또한 육아와 가사의 분담으로 힘든 상황을 맞게 되었고, 결국 일과 가정 그리고 학업의 3가지 중에서 학업은 자연스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일과 삶, 그 속에서 기회를 얻다.

첫 아이의 출산과 더불어 저는 일과 육아에 전념하였고 좋은 아버지로, 훌륭한 가정으로, 우수한 직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권장해오던 유연근무제도가 2011년부터 우리 회사에도 도입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단해왔던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저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학회에 논문게재를 하는 등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틈틈이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2013년 7월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유연근무로 한차례 도움을 받았던 저는 이번엔 육아를 위해서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유연근무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는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켜 주고 회사를 10시까지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아이에게는 친구같은 아빠로, 아내에게도 가사를 도와주는 가정적인 남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힘이 들었지만 10년간 준비한 학업에 대한 소망도 가슴깊이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제게 숨통을 틔워주는 한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유연근무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일과 육아 그리고 학업을 동시에 하기엔 유연근무제도 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직원이 한시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정말 제가 찾던 이상적인 제도였고, 저는 주당 35시간을 근무하

는 시간선택제 근무를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신청하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 · 가정 · 학업, 세 마리 토끼를 잡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근무를 처음 도입한 회사에서, 특히 저 혼자 신청한 시간선택제 근무를 직원 모두가 이해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주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급여까지 깎이면서 괜한 고생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의 도움과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점차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2개월이 지나서부터는 점차 제도가 정착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 직원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며 저를 응원해주었고 6개월간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2014년 8월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 · 가정 · 학업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권장하고 기회를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제도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 기관장과 관련 부서의 담당자의 노력이 저와 같은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만 하는 생색내기식 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제도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게 됩니다. 저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

리아말로 일과 가정 양립과 저출산 시대에 적합하고, 청년실업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시간선택제 근무는 아니지만 유연근무를 다시 시작하여 맞벌이를 하는 상황에서도 육아와 가사를 적극적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시간선택제 근무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모든 기업에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 신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기존 전일제 직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고자할 때는 어려움이 많거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건설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좀 더 풍요롭고 편리해지도록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역시 국민의 생활이 좀 더 풍요롭고 편리해지는 데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하는 제도로 활성화되고 직장생활에서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시간선택제 근무로 10년의 꿈을 이룬 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꿈도 시간선택제 근무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2

행복한 동행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 시간선택제 일자리

김○○/국립공원관리공단

일교차가 크지만, 가을별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날들입니다. 토토로의 숲처럼 울창한 녹색을 자랑하던 도봉산의 숲도 벌써 알록달록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년이 늘 의미 깊은 날들이지만, 저에게 일곱이 들어가는 날들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 일곱살에 설악산으로 간 수학여행에서 숲 해설가를 보고 미래 나의 직업에 대해 준비하게 되었고, 스물 일곱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사하였습니다. 올해 서른 일곱, 저는 늦깎이 엄마로 9월에 복직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 전까지 인재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인 유연근무제를 2010년 9월에 있었던 컨퍼런스를 통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접했습니다. 당시 컨퍼런스를 진행하시던 분들이 이름도 생소한 유연근무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며, 한국여성에게 육아는 경력단절을 의미하고, 가족의 도움으로 육아기를 보내게 되더라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많은 여성이 일터를 떠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

다. “한국여성이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지뢰밭을 맨발로 밟는 것과 같다”는 격한 표현까지 쓰시며 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을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육아를 이유로 유능한 여성 인력의 경력이 얼마나 많이 단절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인지를 말입니다.

그때 저는 막연하게 ‘아, 초등학교 1학년 때가 힘들구나?!’ 라는 생각과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선진국처럼 우리나라에 정착이 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기관에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한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제도의 수혜자로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 긴 시간처럼 여유 있게 느껴지던 육아휴직 기간이 끝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들 민재를 보면서 엄마의 손길이 한참은 더 필요한 아기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께 육아를 부탁드릴 형편도 되지 못했고, 저희 부부에게는 어차피 기댈 언덕도 없으니 힘들더라도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우며, 아이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기도 했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설렘도 있었지만, 어린 아이를 보며 걱정스러운 긴장감이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직을 걱정하고 있었던 지난 여름 인재개발부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육아휴직 후 적응기간 동안 쿠션근무처럼 유연근무제를 몇 개월 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년간의 공백으로 일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아기도 아직 어리니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장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시간선택일자리 유형은 최후의 보루로 아기가 정말 힘들어하면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복귀하게 될 사무소에서는 전일 근무로 생산성을 기대하고 계실 터라 조금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공단 정책이라는 핑계를 대고 9월부터 1월까지 10시 출근 4시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와 달리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듦에 따라 급여차가 커서 근무시간을 더 늘려야 할지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신랑과 상의 끝에 제일 짧은 시간대인 4시 퇴근, 주 25시간 근무유형을 신청했습니다.

복직과 함께 시간선택제 형태 근무 명령이 문서로 통보되자 워킹맘으로 먼저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의 따뜻한 조언을 메일과 문자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에 평생을 걸쳐 꼭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응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직을 앞두고 근무하게 될 도봉사무소에서 걸려온 따뜻한 전화 한통은 복직에 대한 걱정보다 고마움이 더 불끈 솟아오르게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책상이 직급과 승진 시기를 기준으로 배치를 받아야 하지만 9월 복직에 유연근무라서 새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이 어려우니 양해를 바란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시간선택근무제는 책상 등을 여러 사람이 순환형으로 사용하여 비용의 절감도 유도할 수 있는 근무유형이니, 어떤 자리든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입문에서 제일 가까운 제 자리는 퇴근 후 사회복지요원 청년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가

끔 녀석들이 흘린 쓰레기가 살짝 까칠한 저의 본능을 드러내고 싶게도 하지만, 유연근무제의 취지에 맞게 책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엣그제 행정과장께서 근무유형의 만족도를 물으셨습니다. 하필이면 제게 주어진 업무들이 하반기에 처리해야 할 건이 많아 요즘 시간 안에 처리하느라 무척 빠쁘기는 하지만,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복직 후 한달간 적응기에 업무를 처리하며 느꼈던 것은 ‘이렇게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려 일할 수도 있구나’ 였습니다. 10시부터 4시는 업무 피크타임으로 일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그 시간에 일을 다 처리해야만 제 시간에 퇴근 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삭감된 급여통지서를 보면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할 때는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몇 달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퇴근 시간 이후에 야근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밸 것 같습니다. 최대의 생산성으로 일하고, 급여는 적게 받으니 오히려 회사에 유리한 제도 아니냐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퇴근한 후 민원이나, 업무상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확인해서 처리하기도 하고, 급한 일을 챙겨서 퇴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발생한 일을 저 대신 처리 해 주는 동료들의 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직원들보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서 가끔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먼저 퇴근하기가 살짝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 도입에 따른 직무분석이 저희 공단에서도 있었으나, 사무소 여건상 마땅한 직무를 따로 정하는데 한계


가 있어 업무분장으로 그 양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은 제도의 완벽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점차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여성인력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어찌 보면 업무에 100% 몰입하던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일정 시기 동안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니 회사 입장에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국립공원에서조차 과거에는 사나운 맹수를 잡거나, 공원 경계에 위협하지 않게 말뚝을 박는 등 남성의 역할이 대부분이었던 공원관리업무가 지역사회 협력이나, 탐방서비스 제공, 기획 및 홍보 등 여성이 해야 할 역할이 새로 생기거나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일해야 하는 영역이 새로 생기고, 함께하면 시너지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지인이 독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보쉬코리아(BOSH korea) 교육팀에서 근무하던 티미엄마 헤림씨가 독일으로 이주 했는데, 보쉬 본사에서 정규직 단시간 잡(Job)을 얻었다며 기뻐하더군요. 아이를 기르고 있는 대부분의 독일 엄마들은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들은 건강하게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 나라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출산 후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돌아갈 일터가 있어서 아기가 성장하는 행복감을 더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선택제 근무로 일하고 있는 덕분에 엄마의 복직이 아이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쿠션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주위 아기 엄마들에게 ‘그렇게 좋은 직장이 있냐’는 말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부러움의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동안 최대의 생산성으로 일하면서 제 나름의 고마움을 회사에 보답할 것이고, 나중에는 이 습관이 저의 경쟁력이 되어서 더 깊은 직무몰입도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복직 후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덕분에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가정에서의 행복은 직장에서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들이 그 효과를 인정받아 멀지 않은 시간에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3

나를 찾는 4시간의 행복

이○○/주택금융공사 영업부

“엄마 회사 다녀올게. 조금 이따가 만나자.”

오늘도 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아쉬운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선다. 이제 막 6개월이 되어 기어다니려고 하는 예쁜 아기와 잠시라도 떨어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차마 몰랐던 것 같다.

햇살 따뜻한 4월에 만난 나의 예쁜 딸과 모유수유를 한다고 끙끙대며 보낸 여름을 지나, 벌써 단풍 사이로 따스한 황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가을이 왔다. 아이와 함께 남편의 출근인사를 하고, 이유식을 먹이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루고 집안일을 하다가, 1시인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를 돌봐주시러 온 친정어머니께 딸을 맡기고 부리나케 집을 나섰다. 이전에 직장에 다닐 때 입던 예쁜 원피스와 자켓을 입고 나서니, 예쁜 딸과 아쉽게 잠시 헤어진 것도 잊고 기분이 마냥 좋아지는 가을날이다.

지난해 여름. 나는 결혼을 하고 이제 막 회사와 가사일을 조율해가며 적응하고 있을 때 유난히 몸에 한기가 어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다. “축하드려요. 6주입니다” 하시는 선생님 말씀과 함께 임신하여, 오랜

연애로 빨리 아이를 갖자고는 이야기했었지만 결혼 1달만에 선물처럼 찾아온 아이가 고맙기도 하고 내심 걱정도 되었다. 결혼준비와 바쁜 회사일을 동시에 하며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으며, 탈모가 오고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이는 괜찮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여 7년간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 20세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업과 직장으로 단 한번의 쉼 없이 계속 앞으로만 달려왔다.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직장보다도 권태로움을 겪으며, 경력은 쌓이고 시간은 흐르는데 어떻게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 할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던 때이기도 했다. 맡았던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대직이 없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또 금융권의 특성상, 가끔은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여 해가 지고 들어오는 생활도 출산 후에 가정을 함께 돌보며 내가 계속 직장생활을 이전과 같이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어쩌면 지금이 쉬어갈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상의 끝에 태교와 장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사직하고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꾸는 소박한 꿈처럼 대낮에 쇼핑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여러 강좌도 듣고, 커피숍에 가서 한적하게 책도 읽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작은 사치들을 누리며 아기와 함께 태교를 했다. 덕분에 벚꽃이 만개한 봄날, 순한 예쁜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엄마라는 새로운 나에게 주어진 이름 하나가 큰 행복이었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 이름 석자는 계속 잊혀져가며, 엄마로 정신 없이 몇 달을 보냈

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전 직장 동기나 동료들의 승진 소식이나 업계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소식들에 축하와 관심을 가지면서도 자꾸 나는 뒤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출산 후 느끼는 우울감과 함께 가끔씩 찾아왔다.

그러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시간선택제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마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나와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하여 채용하였고, 무엇보다도 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육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남들은 어찌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 같았다.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건네어 보니, 역시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네가 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던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줬다. 나 역시 어찌면 더 늦어지면 그만큼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서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100일도 안된 아이를 돌보면서, 원서를 쓰고 필기와 면접전형을 거쳐서 운이 좋았는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최종합격을 확인하는 날, 정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5개월된 딸을 두고 일을 다시 시작하려니 설불리 시작했나 조금 걱정이 되었다. 말씀을 미리 안 드렸던 양가 부모님들로서는 놀라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계속 엄마로만 살기보다는 엄마로서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나를 찾으며 일과 육아를 동시에 다 잘하고 싶어 지원했다라고 말씀드리니 부모님들 역시 조금씩 도와주시겠다고 흔쾌히 함께 기뻐해주셨다.

이제 이렇게 다시 출근을 시작 한 지 1달. 겨우 1년만의 출근인데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던 첫 출근의 그 날이 생각났다.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가서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쉽사리 오지 않았는데, 역시 1년만에 다시 출근을 하려니 또 두근두근거렸다. 막상 출근을 하고 보니 나와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점도 많은 대부분의 경력단절인 동기들과 여러 공감대를 가지며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지사에 배치되어서도 같은 상사분들, 동료들 모두 시간선택제 채용의 취지와 의미를 잘 이해해주셨다.

나는 현재는 일을 배워가며, 금융공사의 대표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심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또 나는 지사와, 또 아이를 돌봐주실 친정어머니와 시간을 상의하여 오후 출근을 결정하였다. 아직은 점심 출근이 낯설기만 하지만, 내 책상 그리고 또 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울려오는 문의 전화로 시작하는 하루의 4시간은 정말 정신 없이 지나간다. 이전에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 종일 업무를 하다보면 점심을 먹고 나서 집중도가 낮아진다거나 야근을 하면 다음날 피곤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던 일들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4시간 근무하면서 그 시간만큼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려다 보니 일에 그만큼 자연스레 집중을 하게 된다.

이제 1달을 다니며, 모르는 것도 많아 당황하고 팀원들에게 아직은 도움 보다는 이것저것 질문을 하느라 누가 되지만, 그동안 쉬면서 어찌면 그리웠던 출근을 하는 길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이전에는 퇴근을 하면 피로감에 지치고 다음날을 준비하기 바빴지만, 현재는 퇴근을 하면 잠깐 사이

못 본 아이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또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시간선택제로 유연하게 근무를 하며 아이도 내 일도 둘 다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겨났다. 나의 5년 후, 10년 후에는 아이도 지금의 엄마의 선택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요일 저녁이면 내일의 월요병을 걱정을 하는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아침에 내 아이와 함께 눈을 뜨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4시간만큼은 아이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으로 일하는 시간인 만큼 나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이라 즐겁고 감사하다. 

4

꿈꾸는 자만이 춤출 수 있다

박○○/한국남부발전(주)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인데, 특히 나에게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겼고 그 나이에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일자리도, 나를 원하는 곳도 찾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어찌 보면 이제 정년이 가까운 나이에 접어든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소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막연한 일 같기도 했다. 또 구직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서도 가정을 완전히 뒤로 할 수도 없었고 회사의 일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이의 엄마로서의 자리도 병행하고 싶었다.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나에게 에너지 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의 시간선택제 근무자 채용은 새로운 꿈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고마운 선물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푹푹한 20대를 보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면 퇴사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흔한 인식이었고 나 역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전업주부로 돌아갔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쯤 나는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리턴맘 프로그램이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어 다시 예전의 직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학원 상담 교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전 직장에 비해선 모든 것이 열악한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종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아침에 보내놓고 뒤돌아서면 이내 하교하여 내 뒤통수에 대고 ‘엄마’라고 외치는 아이를 두고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2년 동안의 학원 상담 교사 생활을 접고 아이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살짝 빌리면 될 만큼 크자 재취업에 대한 열망이 생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 같지 않았다. 나보다 훨씬 부지런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던 어머니가 자꾸 지치고 힘들다고 하셨다. 결국 어머니께 손 한번 내밀어 보지 못하고, 8개월의 투병 생활 후 우리 곁을 떠나셨다. 외할머니를 유독 따라 상심이 큰 아이의 모습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나의 구직 활동은 또 한번 마음 한켠에 접어두게 되었다.

그 후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나이지만 이번에는 지인의 소개로 리서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어렵사리 다시 시작된 사회생활이 한국남부발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게 되는 인연이 되었다. 항상 마음속에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남은 시간의 여유

남부발전으로 첫 출근하던 날은 기쁨 반, 두려운 반 복잡한 심정이었다. 괜찮다고 속으로 여러번 되뇌어 보았지만 집에서 쉬는 기간이 길었고 장기간의 경력 단절,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서 오는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의 2011년 10월 첫 출근이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내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었다.

젊은 친구들과 달리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대우 아닌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일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업무에 대한 실수가 있을까 봐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다행히 맡은 업무는 내 적성에 잘 맞았고 그렇게 걱정하던 장년이라는 나이는 오히려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다.

내가 맡은 업무 중 모니터링 업무는 주로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일이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에서 오는 인내심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그에 따른 성취감도 높았다.

한편으로, 시간선택제 근로를 하게 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것인지, 어느 날 아이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동네를 위해 좋은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해 오셨다.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고 싶어서 제안을 수락했다. 조금은 남다르고 특이한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 동네에서 나는 27통 통장 아줌마다. 나는 시간제 근로로 인해서 잃었던 짧은 날의 꿈과 가정일과 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은 것이다.

꿈꾸는 자만이 출출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시도들이 다 그렇듯 처음 시간선택제 근로를 시작할 때 주위의 시선이나 분위기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10시 출근, 3시 퇴근이라는 근무시간은 그런 근로형태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가장 처신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혼자 먼저 퇴근하는 것이 함께 일하는 다른 부서원들의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는건 아닐까 항상 조심스러웠다.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다른 부서로부터 핸드폰을 통해 업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 시간에 벌써 퇴근을 했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또한, 근무시간이 짧으니 업무도 단순 업무일거라는 편견과 소수에 불과한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다른 직원들과 협력 업무를 할 때면 시간 조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이 고비고비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동안 나는 시간

선택제 근로자로 청렴 윤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 남부발전이 청렴도 1 등 공기업이 되는 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한다.

그것은 시간선택제 근무가 종일 근무에 비해 단시간의 근무로 집중도를 높여 근무할 수 있었고 개인의 소질을 잘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시간에 적합한 업무가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청렴도 1등을 달성해 나가는 하나의 벽돌이 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작은 희망사항이 있다. 부서장이 부서원에 대한 신뢰와 대면 업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유연근무제나 단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등 다양한 업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 선별과 시행을 위한 제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앞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근무 경험을 통해 나는 시간선택제 근로가 일과 가정, 일과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먼저 경험해 본 선배로서,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많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하고자하는 마음만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전하고 싶다.

꿈꾸는 자만이 춤출 수 있다. 나는 또다시 구직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나이의 앞자리가 또 바뀌는 날에도 끊임 없이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5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간호사

▶▶▶ 박○○/한국중부발전(주)

“우리 엄마는 간호사입니다. 지금은 병원이 아니구, 전기를 만드는 공장
에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간호사입니다!”

6살 난 개구쟁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이라는
주제로 학부형 참관수업 중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TV에 나오는 만화주인공 이야기나 장난감이야기, 혹은
훌륭한 위인들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꿈꾸며 희망하는 내용들이었는
데, 유독 내 아이만 다소 낮간지럽기도 하고 또한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말
하는 통에 얼굴이 멋쩍게 붉어졌습니다.

“이야, 강현서! 니네 엄마 진짜 멋지다!”

“좋으시겠어요. 간호사 엄마!!! 호호호...”

하며 반 친구아이들과 학부형 및 선생님들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가슴
이 뭉클해지며 순간 예전에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눈을 스쳐 갔습니다.

“현서엄마...”

주위 분들은 모두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박○○이며, 간호사였습니다.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호텔에서 꽤 많은 수입의 딜러로도 일하던 중 용기를 내 25살의 늦은 나이에 간호학과에 입학해 당당하게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도중에 포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회사에서 점점 인정받는 직원으로 성장해 갔지만 저는 그동안의 모은 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며 스스로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간호사의 문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턱없이 높았고 겨우 들어간 곳은 간호사 모두가 꺼려하는 곳,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작은 병원이었지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며 작은 일에도 보람과 감사를 느끼는 당당하고 성실한 직장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장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회사(병원)의 사정상 장기간의 휴직은 불가피하다 하여 그만 둘 수밖에 없었고, 직장 및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를 키우다 여러 가지 이유로 6개월만에 작은 개인병원의 수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많게는 하루 11시간까지 일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었던 나는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 집, 친정을 오가며 4년 넘게 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친정집은 직장에서도 2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이었고 두집 살림을 하던 나는 점점 지쳐 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싸움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은 부부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는 항상 나를 찾았고, 돌도 되지 않는 아이를 그렇게 어린이집에 보내며 일도 육아도 가정도 엉망이 되어버린 나만 처참한 모습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눈이 오면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잠 들었다가 정류장을 지나치기도 여러번, 단 한번도 아이의 운동회나 재롱잔치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자격에 대해서 혼자 되묻고 또 되묻고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과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는 없을까. 내 능력으로는 어찌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까. 나의 욕심이었을까요? 남편과 아이를 위해 또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간 계약직으로 일해보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닦치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일이 하고 싶냐며 애나 잘 키우고 나중에 일하고 공부하면 될 텐데 힘들게 살지 말자며 나를 붙잡고 밤낮으로 설득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간호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로서 1여 년, 저는 어느새 박○○이 아닌 ‘현서엄마’로만 불리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이와 남편은 행복해 했습니다. 저도 좋기는 했지만, 마음 깊이 행복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위 간호사 친구나 동기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주임에, 차치간호사에,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저만 보면 팔자가 좋다고, 전문직 종인 간호사들도 결혼하고 애기 낳고 나면 다 밥하고 빨래만 하는 아줌마가 되어버린다고 그냥 몇 년 더 그렇게 살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더 뒤처지고 사회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간호사가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 다녀온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간호사였었지?”

“응, 지금도 간호사야”

“엄마, 근데 왜 지금은 아픈 사람 안 도와줘?”

“응, 그건 현서랑 아빠를 엄마가 도와줘야 할거 같아서. 엄마가 일 나가면 현서랑 아빠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아들은 한참을 가만히 생각하더니,

“엄마, 아빠는 어른이야, 나도 이젠 형아 반에 들어갔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많아. 나는 괜찮으니까 아픈 사람 도와줘도 돼, 지우아빠는 소방관아저씨래 그래서 불 끄는 거 도와준대.”

아이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뜩했습니다.

남편도 역시 저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이라며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 보았습니다. 간호사로써 아들에게 부

끄럽지 않고자 신문에, 인터넷에, 지인에, 공공기관에,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아 보았지만 장기간 경력 단절인 저에게는 육아와 함께 일을 병행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주위의 박사학위를 딴 전문직종의 사람들도 나이 들고 육아를 하다보면 애써 쌓아놓은 그런 경력들은 다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쌓은 경력은 아깝지만 그런 경력을 펼칠 기회가 우리 사회에는 너무 없다고 했습니다.

직업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해도 육아와 병행해야 하는 직장맘은 우리 사회에서 설 자리가 거의 없다고들 했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그렇지만,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간호사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그만큼 절실했고 또 그만큼 우리의 현실에 실망하며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나라에서 권장하고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구인모집공고를 발견한 것입니다.

“한국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에서 경력 단절 여성 관련 보건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취업준비를 위해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회사 관련 뉴스와 발전소 관련 자료수집, 주변 보건관리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가족의 든든한 지지와 응원을 등에 업고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경쟁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합격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중부발전(주) 제주화력발전소의 보건관리자 박○○!’이 되었습니다. 현재 새롭게 입사한 제주화력발전소에서는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여 육아와 병행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감을 통해 저 또한 직원과 회사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간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 이 회사의 보건관리자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간호사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롭습니다.

또한 원하는 전문분야에서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 진학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늦게까지 기다리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매일 울며 매달리며 떼쓰는 일도,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는 일도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즐거운 맘으로 아이는 엄마를 기다립니다.

“엄마, 나 내일 소풍 때 김밥 말고 다른 거 싸줄 수 있어?”

“그럼, 어떤 거 해줄까?”

“음... 닭꼬치랑 햄초밥이랑 계란초밥 주먹밥”

“그래 엄마 일 끝나고 같이 장 보자”

“우와 엄마 최고! 근데, 엄마 나 뭐든지 빨리빨리 안해도 돼? 내가 빨리빨리 안하면 엄마 간호사 못하잖아. 그러구 이제 토요일에 현서 어린이집 안 가두 돼?”


“이젠 괜찮아, 현서야. 엄마가 그동안 우리 아들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

해.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현서랑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줄게, 어때 용?”

“야호! 신난다!! 그리고 이젠 엄마 일하는 거 좋아. 엄마, 기다려 봐봐, 내가 커서 의사선생님 해줄게, 알았지?”

이젠 어디를 가든 내 아이는 엄마가 간호사선생님이라고 자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도시락도 싸주었고 아이의 운동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꿈같은 날들입니다.

저의 이 작은 이야기가 6살 아들 현서에게도, 또 우리 가족에게도, 또 다른 누구의 엄마로만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도 능력이 있으면 다시 일할 수 있음을, 우리 사회에 다시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빛나는 직장, 제주화력발전소가 내 자신과 나의 가정,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우리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바다 위로 아름답게 솟는 아침 해를 보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으로 가는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내려앉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참으로 근사한 날들입니다. 

6

삶의 빛을 밝혀준 시간선택제 근무



최○○/대한지적공사

어느덧 시간선택제 근무를 시작한지 2년이 넘어섰다. 매일 아침 두 아이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바쁘고 정신 없는 아침이 지나간다. 그렇지만, 내 손으로 살뜰히 챙겨서 어린이집으로, 학교로,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행복한 감사함이 깃든다.

이제는 엄마가 회사 생활하는 것에 모두들 적응해서 서로의 일과에 익숙해졌지만, 처음 두 아이를 키우기까지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다.

아픈 손가락. 엄마가 미안해

첫째를 낳고서 겨우 2달을 키우고 회사생활을 위해서 시댁에 아이를 맡기기로 했다. 그때, 일찍 출근해서 출장 준비를 해야 하고, 업무가 팀으로 운영되므로 혼자서 일찍 퇴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근무지에서 시댁(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까지 4~5시간씩 운전해서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갔다. 주마다 왕복하던 게 2주에 한번, 3주에 한 번씩으로 횟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아이와 떨어진 삶을 당연

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를 만나고 오는 주말은 너무 힘들었다. 나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슬픈 마음에 집에 오는 길엔 항상 눈물바람이었지만, 현실상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게 어려웠던 나는 4년 동안 아이를 시댁의 도움으로 키울 수 있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아이를 가엾게 여긴 시누이(아이의 고모)가 본인이 평일날 유치원을 보내고 주말에 부모가 데려가서 키우는 게 어떻겠냐는 고마운 제안을 해주었다.

고모는 지극 정성으로 돌봐주었고, 언니 두 명은 동생이 말만하면 다 들어주는 천국이였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출근을 위해 돌아가야 하는 일요일 저녁이면 “엄마~, 아빠~, 안 가면 안 돼?”라고 하며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체념한 투로 묻는 5살 아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차라리 같이 살고 싶다고 떼를 쓰면 마음이 덜 아팠을 텐데.

아이가 6살이 되던 해, 친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많았지만, 엄마 아빠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아이를 위한 최선책이었다. 아침 7시도 못 되서 아이를 깨워 준비시켜 오빠네 집에 맡기고선 이른 출근을 시작했다. 평소 9시가 다 되어 일어나던 아이는 꿈속을 헤매는 상태였고, 출근 준비에 여념이 없던 엄마는 빨리 준비가 되지 않아 속이 타고 결국 아이에게 “빨리빨리”를 외치며 억박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첫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엄

마의 출근 소동에 혼이 빼앗겼다. 그리고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오면 외삼촌 집에 맡겨졌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는 엄마를 만나면 짜증부리는 것으로 인사를 시작했다. 나도 그런 아이의 행동에 속상해 하고, 내가 원하던 가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힘들기만 했다. 그 시기에 둘째의 임신으로 몸도 무겁고, 갑작스런 육아도 힘에 부쳤다.

육아휴직. 그 끝은 어디일까?

둘째를 낳고서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젠 더 이상 연로하신 시부모님께 2명의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아주 먼 섬에 살고 계신 친정 부모님은 고려의 대상이 되질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젠 더 이상 내 아이를 이곳저곳에 맡기고 싶지 않았다. 절대 아이를 내 품에서 떨어뜨려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첫 아이가 할머니, 고모, 외숙모, 그리고 나. 이렇게 보육자가 네 번이나 바뀌다보니 다른 아이와는 확연히 달랐다. 행동이 너무도 느리고, 지구인을 관망하는 외계인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연히 또래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엄마를 잘못 만나 아이의 마음이 다쳤구나 싶은 자책감에 나도 많이 힘들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며, 큰 아이를 아동심리 상담 및 놀이 치료 등을 병행해가며 치료해나가려 노력했다. 심리상담사는 아이가 엄마라는 존재를 그리워 하지만, 그걸 짜증내는 방법으로 엄마에게 간절함을 전달하고, 보육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정서적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다고,

이를 치유하는 데는 상처받았던 시간의 2배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느린 아이인 만큼 부모가 더 많이 챙겨주고 기다려야 한다고했다.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변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왜, 왜 이렇게 힘들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큰 욕심도 아니고 보통아이처럼 자라길 바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라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붙잡고 울어댔다.

어느새 큰 아이는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육아휴직 1년을 더 연장했다.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준비물이나 학습태도가 불량하여 부모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학교 준비물도 다 챙겨주고, 다 적지 못한 알림장도 확인해서 꼬박꼬박 보냈는데, 그것마저도 힘들었나보다. 엄마들과 어울려 또래친구도 만들어주고, 둘째도 매일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기저귀 갈고, 나의 하루는 힘들었지만 그동안 못해준 마음에 더 열심히 아이에게 힘을 쏟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휴직을 연장할 수도 없고 최장 3년까지 휴직한 다음, 그 끝은 어디일까?

더이상 아이를 다른 분께 맡기고 싶지 않고, 가까이 친척분이 사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직접 키우고 싶은 욕심을 채우자면 퇴직이 정답이나 퇴직 후에 경제적 어려움도 걱정이고, 8년 넘게 이 회사를 다니며 직장을 내려놓으면 나에게 무엇이 남나하는 허무함에 나의 존재감마저 상실될 것 같았다.

지적측량 분야가 특수기술직이라 지적공사, 지적공무원 외에는 다른 취

업노선이 없는 실정이라 더 난감할 뿐이었다. 난 왜 손재주도 하나 없나 하며 애꿎은 손만 쳐다볼 뿐이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며 집에서 지내던 차에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가 새로 생기고 시간선택제 근무를 시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빛이 되어준 시간선택제 근무

아이도, 그리고 내 자신도 모두 포기할 수 없어 답답해하던 나에게 시간제 근무는 너무도 아찔한 유혹이었다. 난 그 유혹 속에서 미친 듯 춤추고, 날고 싶었다. 전업 주부가 되어 아이에게 전념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에게겐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에게 노력하는데 왜 첫째는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는지, 보상해주지 않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으니까.

2012년 10월 8일. 휴직 1년 6개월여 만에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의 시작과 함께 복직했다. 현장에서 산과 들을 누비며 곳곳을 측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측량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하는 부서였다. 초기에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만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보았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 회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 미안한 마음도 컸으나, 담당하셨던 차장님께서 절대 그런 생각 말라며, 회사도 필요에 의한 인력 모집을 했고, 인건비 절감 및 경영평가 반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 다독여 주셨다.

동료들 대부분이 시간선택제 근무자였으며, 육아 및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감사히 여겼다. 업무에서도 육아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 힘이 되어주었다. 휴식기간 동안 육아에만 전념하며 받았던 스트레스도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며 풀렸고,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에 몰두하며 회사에, 그리고 이 사회의 조직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을 누렸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2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도 아이도 안정을 찾아 마음의 치유를 하기 시작했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사의 본사건물이 전주시로 이전을 했고, 우리 가족은 아빠와 떨어져 엄마의 근무지로 이사를 했다.

처음 전주혁신도시 내의 주거 환경은 지적공사 건물과 회사건물 바로 옆 초등학교, 아파트 달랑 2채뿐인 암담한 현실이었다. 아이들이 학교 외에 갈만한 학원이 한 곳도 없는 곳. 그래도 나에게 가장 믿을만한 구석은 역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가 방과 후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 데리러 가서 엄마의 손을 잡고 집에 왔다. 이사로 인한 환경변화에 예민해지지 않도록, 아빠와 떨어져 지내면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수 있었다. 요즘은 큰 아이도 잘 적응해주고, 얼마 전엔 학교에서 상도 받아왔다. 둘째는 아파트 내 사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직장 내 어린이집(랜디 어린이집)이 생겨 엄마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 LX대한지적공사에서 받은 세 번째 선물이다. 일할 수 있는 기회(입사), 시간선택제 근무 그리고 같은 공간

의 어린이집. 이제는 모두가 생활의 안정을 찾아 시간도 많이 늘려서 근무하고 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근시간이 되면 둘째의 손을 잡고 식사준비를 하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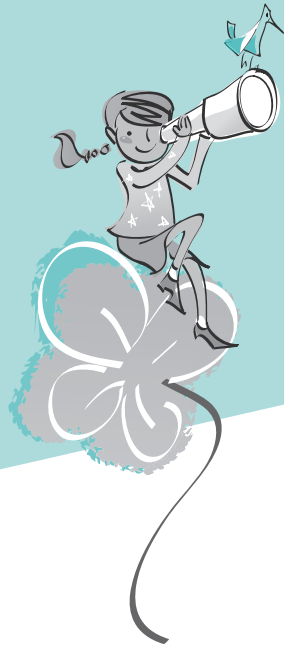
나는 특별한 종교는 없지만 요즘은 마음 속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도입해 준 나라에 대한 감사, 시간선택제 근무를 채택해서 나를 일할 수 있게 해 준 이 회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간제 근무를 너무도 잘 이해해주시고, 아이가 아플 때도 흔쾌히 휴가를 허락해주신 담당 차장님, 부장님께 대한 감사, 더불어 나의 행복에 날개를 달아주신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마련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나의 행복을 나처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자하는 직장맘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일, 육아. 한 가지 선택만이 정답이 아님을, 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음을, 그리고 이렇게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편하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시간선택제 근무자로만 굳어지는 두려움이 없이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전일제 근무로의 전향이 걸림돌 없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를 기도해 본다.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I PART

고졸채용



1

이 시대 모든 고졸들에게 희망을



민○○/국민건강보험공단

친구들이 나보다 먼저 대학을 가고, 먼저 취업을 해도 두렵지 않았다. 비록 남들보다 늦었지만 결국,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곳에 취업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 하나로 살아온 고졸인생 27년. 나는 결국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우연처럼 운명처럼 만난 고졸 채용

20대의 나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다. 대학교 합격장을 받았지만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고 백화점에서 일하며 매달 100만원씩 살림에 보탬다.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일개미로 살면서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친절함과 성실함이었다. 백화점 지점장 표창장, CS 친절상, 고객 칭찬의 글에 힘을 얻고 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나는 내가 고졸이라는 것, 마음껏 공부할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진짜 나의 꿈을 찾고 싶었

다.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나는 나의 친절 서비스 정신을 공직에서 만개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큰 꿈을 안게 되었다. 하지만 일과 수험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해를 거듭할 수록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공부량은 더 많아지고 성적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응시한 공무원 시험마다 줄줄이 낙방했다. 내가 슬펐던 건 나 자신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자괴감이었다. 계속된 실패와 좌절 끝에 청운의 꿈을 접고 현실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연히 지하철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졸인턴 공고를 보게 되었다. 고졸인 것이 평생 가슴의 한이었던 나는 그렇게 우연처럼 운명처럼 고졸채용의 새로운 기회를 만났다.

고객의 소리로 시작하는 하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많은 불합격으로 얼룩진 내 인생에 처음으로 소중한 기회를 준 곳이다. 19살 고등학교 졸업예정 인턴 동기들 사이에서 유일한 20대 후반 고졸인턴이라 쑥스럽기도 했지만 나는 소중한 기회를 얻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간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지원부 소속 인턴으로 입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심평원 고객의 소리(VOC)로 하루를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든 고객 만족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현황에서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배우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인턴이기에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평원 분들은 나의 성실함을 높게 사주셨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 상담 사례집’ 발간에 참여할 수 있었다. VOC

로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1, 2차 VOC 선별 작업, 최종 원고를 교정하는 마무리 단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어 온 모든 과정에 빠짐 없이 참여하였고 성공적으로 민원 상담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었다. 담당 차장님께서 맡은 일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보람으로 느끼며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에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 심평원은 업무적으로 배울 것이 많았고,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하여 바탕이 되어야 하는 기본을 가르쳐 준 곳이다. 또한 심평원 특유의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는 인턴 수료일에 눈물이 흐를 만큼 감사하고 훈훈했다.

결정적인 신의 한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펙초월 전형

행운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행운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수료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 스펙초월 전형에 응시했다. 2주간의 미션 수행으로 진행되는 스펙초월 전형은 말 그대로 스펙을 초월하고 학력에 구애받지 않는 고졸채용 전형이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인성 미션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창의 미션, 30개의 상호평가까지 정말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게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정성껏 미션 수행을 한 결과 공단 최종면접에 올라갈 수 있었으나, 낙방했다. 비록 최종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꿈이란,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꿈이 이뤄지지 않았더라고 내가 성장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다. 나는


희망을 잃지 않고 좀 더 간절해진 꿈과 진심을 담아 계속 고졸채용에 도전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끈질긴 재도전 끝에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직 스펙초월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 시대의 모든 고졸들에게 희망을

내가 겪어 온 고졸채용에서 느낀 점은 학력뿐 아니라 고졸 지원자의 나이에도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심의 고졸채용에서 이 시대의 모든 고졸들에게 희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현황 속에서 이 시대의 고졸들에게는 말 못할 사정과 상처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둡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면 상처는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세상의 빛을 찾아서 빛으로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한 때, 나는 이 용기를 고졸채용을 통해 찾았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나를 붙잡아 준 것은 고졸채용의 희망이었다. 깊은 패배감에 젖어 자신감이 바닥으로 향하던 20대 후반, 내게 찾아온 이 소중한 기회는 한순간에 내 인생을 바꿔놓았고 나는 어엿한 공단인이 되었다. 나이에도 관대한 고졸채용은 더 많은 고졸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메신저가 될 것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는 고졸 채용 덕분에 은밀하지만 위대한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언

이은 실패와 삶의 좌절 속에도 무한한 꿈과 용기, 긍정의 힘으로 이겨온 나는 새로운 꿈을 꾸다. 공단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다. 수습기간 동안 현장 교육(OJT)을 통해 일방적인 지식 전달교육이 아닌 현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차장님께 피드백을 받고, 경험이 많은 선배들께서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OJT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을 접하게 되고 끊임 없이 학습하는 자세를 배웠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직무소양교육을 받고 사내 법령 스터디에 가입하여 매주 일요일 「국민건강보험법령」, 「노인장기요양법」을 공부하고 있다.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전화영어, 매달 독서통신교육까지. 20대의 내가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고객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겸손하고 근면함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감량을 쌓기에는 부족할지 모르나, 나는 항상 선량한 마음을 지닌 내실이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개관사정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관 뚜껑이 닫힐 때야 비로소 인생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공단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와 공존하며 평생을 함께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리하여 나의 관 뚜껑이 닫히는 날, 최고의 건강보험서비스 전문가로 평가받을 것이다. 

2

K-POP STAR? NO, K-WATER STAR!



김○○/한국수자원공사

기나긴 노력 끝에 드디어 K-water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인생 선배 혹은 인생 후배가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현재 고졸채용을 준비하시는 많은 고졸 예정자들과 고졸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기로

중학교 3학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다. 열여섯, 어린 나이였고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하기엔 이른 나이였다. 그렇게 어려워진 가정형편을 이유 아닌 이유로 삼아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재학기간 동안 난 미래에 대한 확실성도 갖지 못하고 단지 나중에 성적으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생각보다 전공교과도 적성에 맞았고, 무엇보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좋아서 큰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전교에서 1등을 하는 쾌거를 누릴 수 있었다. 성적이 높았기에 나의 미래는 당연히 대학으로 굳어져 가는가 싶었다. 주변의 기대

에 부응하고 싶었고 또한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가정을 위해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이기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 자신도 대학에 대한 큰 욕심도 없었기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진로를 진학에서 취업으로 바꾸게 되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기회가 찾아온다

생각보다 취업은 쉽지 않았다. 전에는 단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었기에, 나는 금방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의 벽은 높았다. 결국 많은 취업시도에서 실패라는 쓴 맛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의 취업준비는 시간낭비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회의감에 빠져 있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채용공고가 나왔다고 알려주셨다. 그때 난 취업에 대해 지칠 대로 지쳐있었고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내 사정을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네 인생의 좋은 기회일지 모르니 지원해보자고 격려해주셔서, 내 스스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이라 생각한 만큼 자기소개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정성스럽게 작성했다. K-water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목표와 비전, 사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몇 번을 읽고 찾아보며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넣고 1차 전형인 KACT(K-water 직무능력/역량 검사) 공부에 매진했다. 시험 전날, 나는 함께 지원한 친구들과 함께 미리

대전에 내려가기로 했다. 처음 가보는 대전이었지만, 설렘보다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었다. 시험 당일, 준비했던 만큼 잘 치렀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시간은 금새 흘렀고 시험을 끝마친 후에는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바로 2차 전형인 면접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함께한 친구들을 뒤로한 채 혼자 1차 합격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껏 시도했던 대부분의 취업도 면접에서 탈락에 고비를 맞보아야 했었기에 면접 준비도 전보다 더 열심히 했고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모두 나를 잘 드러낼 수 있고 회사에서 나를 뽑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준비했다. 면접은 2인 1조로 진행이 됐고 맨 처음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K-pop스타가 아닌 K-water스타가 되고 싶은 김○○입니다.” 면접관들이 미소로 답해 주셨고, 그 후로는 면접관들의 질문에 준비한대로,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대답했다. 면접이 끝난 후 문 밖을 나오자 바로 한숨이 쉬어졌다. 내 성에 안차기는 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K-water에 나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최종합격자 발표 날,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였고, 화면에 뜬 건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합격창이었다.

열아홉, 남들보다 먼저 사회에 발을 딛다

합격자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동안에 서러움과 고생했던 것이 생각났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담임선생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먼저 축하한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바로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합

격의 소식을 알렸고 가족들 모두 정말로 좋아했고 축하한단 말을 아끼지 않았다. 면접을 했었던 K-water 교육원에 나는 열흘간의 신입사원 교육을 받기 위해 다시 갔고 그 곳에서 40명의 동기를 만났다. 열흘 동안 핵심 가치와 직장예절은 물론 K-water를 이해하고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 내내 설렘과 기대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K-water 고양권관리단으로 발령을 받고 드디어 첫 출근.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아직 어린 내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을 떠나 사회라는 곳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걱정이 됐다. 이제 더 이상 학생이란 이유로 보호받을 수 없고 낯선 공간에 나 혼자 있게 되는 것도 두려웠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곳에 계신 상사 분들과 선배 분들은 모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모두 잘 대해주신다. 내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이 민망할 정도로 상사 분들과 선배 분들은 내게 힘이 되어주셨다. 낯선 업무에 허둥지둥하는 것도 잠시, K-water에서 고졸인재 육성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인 멘토링 제도가 큰 힘이 되었다. K-water에서는 나와 같이 사회경험과 직무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졸직원들을 위하여 입사 6개월 동안 다양한 직무교육과 OJT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교육에서 여러 분야의 선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있었다. 또한 6개월 동안 회사적응, 업무이해, 비전수립의 단계별로 교육이 이뤄지면서 차근차근 K-water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었다.

물론 내가 지금 완벽히 업무를 습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맡은 직무를 해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1년, 10년, 20년 그 이후를 후회 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 K-water인으로서의 첫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손꼽힐 것이다.

The END가 아닌 ~ING

나는 이제 겨우 스무살이다. 그런 나에게 주위 사람들은 말한다. “그 좋다는 공기업에 붙었으니 이제 끝났네!”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끝난 게 아니라 겨우 한 발을 시작했을 뿐이다. 이제 스무살인 나에게 공기업 취업은 정말 큰 기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안주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기회를 그냥 물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아직 나에게는 꿈이 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해왔던 환경동아리 활동을 통해 나는 환경공학자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K-water에 입사해서도 나는 아직 꿈꾸고 있다. 그리고 K-water는 나의 꿈과도 많은 관계가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라고 생각한다.


자선구호가 한비야님이 하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라”라는 말이 있다. K-water에 입사한 지금 나는 가슴이 뛰다. 그리고 K-water를 통해 내 궁극적인 꿈까지 이루고 싶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감정이 입사한 이후 나의 미래로, 꿈으로 더 뚜렷해졌다. 희미한 동경의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통해 나는 성장해왔고 그 노력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욱 더 성장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현재진행형 ‘~ing’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에 ‘ing’라는 날개를 달아준 K-water에 늘

감사한다.

첫 번째가 아닌 시작은 없다

나는 여러 번 떨어지고 다시 시작한 취업준비생이었다. 하지만 내가 K-water에 도전한 것이 나의 첫 번째 시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나는 K-water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다시 시작했지만 이것 역시 첫 번째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한지 오랜 시간이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곤 한다. 물론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명이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시작도 안한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다. 지금의 나를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그전에 내가 했던 시작들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고 현재의 시작은 영양제를 맞고 있는 것이다. 나를 잘라내는 고통이 있지만 결국 모두 나라는 나무를 성장시키기 위한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물을 99℃까지 올려놓아도 끓게 하는 건 마지막 1℃.” 라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는 99℃까지 올라와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물이 끓지 않는다고 불을 꺼버리는 건 정말 바보같은 일이다. 그러니 모두 마지막 1℃를 위해 시작해라!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비록 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제가 어떤 미래를 살아갈지는 저도 확실하진 못하지만, 확실한건 현재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란 말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십시오. 꿈이 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열+아홉 살 인생

김○○/한국수자원공사

출근길, 구두에 넥타이까지 한참을 차려입고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면 항상 나를 당황시키는 일이 있다. 교통카드에서 울리는 “빕! 청소년입니다” 라는 소리! 매일 아침 들리는 목소리는 왜 그리도 경쾌한지. 마냥 부끄러워서 기사님께 멧쩍은 목례로 인사를 대신한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 참 부럽기도, 혹은 살짝 우쭐해지기도 한다. 그렇다, 나는 고작 세달 전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던 고졸취업자인 것이다. 그때 보았던 버스 창 밖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달라서 매일 매일이 새롭기만하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진로와 진학을 놓고 고민할 때 나는 망설임 없이 인문계 고교 진학을 포기했다. 낮은 학업성취 수준 때문도 아니었고 집안 사정이 특별히 어려워서도 아니었다. 남들이 진학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

했던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어져 온 ‘어른이 되고 싶다’는 유치한 발상 때문이었을까. 어찌되었든 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성화 고교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그럴 때 마침 삼일공고에서 설명회를 나왔는데 내신 성적 170 이상이면 3년 장학생에다 일본 산학연수를 시켜준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70%가 진학을 한하는데 나머지 30%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겠느냐는 어머니의 걱정을 무릅쓰고 수원 삼일공고 발명디자인과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약속대로 1학년 때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고등학교 안에 커다란 공장이 있었고 학생들이 직접 기계를 만지며 실습을 하고 있었다. 과연 과학강국답게 기초부터 성실하게 다져가는구나 생각하니 부럽고 놀라웠다.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며 실습한 학생은 졸업하자마자 현장에서도 실력을 발휘하는 현장형 인재가 된다는 이즈오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색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해 상용화까지 성공시킨 일본의 과학자들이 이번에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배경에는 이런 국가적인 배려가 깔려있으니 그들의 끝없는 실험정신과 더불어 노벨상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방향을 알았으면 첫걸음을

학교로 돌아옴과 동시에 나는 여러 가지 교내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손을 들고 보는 용감한 학생이 되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내성적이어서

남 앞에 잘 나서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다. 처음 느끼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근거 없는 무모한 자신감은 1학년 내 바쁜 학교생활로 되돌아왔다. 덕분에 남들보다 한 시간 먼저 학교에 가고 한 시간 늦게 하교하는 학생이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5분 거리의 일반 고등학교를 두고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학교를 다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코피가 날 때는 후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힘든 시기는 잠깐이었고 특성화 고교답게 실습시간이 많고 각종 대회가 많았다. 나는 그 시간들을 적극 활용했다. 각종 행사에서 배울 수 있는 일은 도맡아 하고 수업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짜내어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며 자신감을 길렀다.

그 결과 처음 나간 대회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다. 성과가 보이자 점점 수업이 재미있어지고 관심이 넓어졌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2년이란 시간이 금방 지났고 많은 대회에서 수상실적을 냈고 몇몇 자격증도 갖게 되었다. 또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내 창업을 하여 학교기업의 부대표를 맡게 되었다. 목표가 있으니 학교생활이 재미있고 보람도 있었다.

가다보면 길이 보인다.

특성화고는 2학년 때부터 입시 설명회와 채용설명회가 동시에 열리게 된다.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라는 것인데 나는 자연스럽게 처음의 목표대로 취업에 관심이 있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오로지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만한 노력이면 다른 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스티브 잡스가 대

학교를 나와서 성공했는가! 결국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는가. 물론 대학생 활에 대한 동경이나 끝내지 못한 학업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로 시선을 돌려보니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정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에 당당하게 나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이 필요했던 것이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일 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았고 취업의 관문은 좁았다. 그리고 취업을 택한 아는 선배가 없어 정보가 부족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무조건 취업에 관련된 면접에 참여하고 고졸채용 취업 박람회에도 가 보았지만 거기서 본 것은 나보다 뛰어난 경쟁자들의 모습뿐이었다.

그렇게 좌절할 것만 같던 때에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줬던 것은 다름 아닌 고졸채용 수기였다. 나의 선배님들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꿈을 이룬 것을 보고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해서 저렇게 성공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나름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 2% 부족한 것 같은 아쉬움을 남긴 것은 사실이었다. 누구보다 노력해서 저렇게 성공한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마음으로 그 자세와 조언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취업활동에 나선지 3개월 만에 한국 전력공사의 채용연계형 인

턴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미 이 길을 한 번 거쳐 간 분들이 해주신 조언은 직접 듣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왔고,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사실 취업에만 성공하면 그 뒤로는 탄탄대로만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한참이나 많이 남아 있다. 신입사원 연수의 시작과 동시에 배워야 할 것은 많았고, 지금까지의 지식이 무색하게 현장과 학교에서의 공부는 많이 달랐다. 다행히 한국 전력공사의 뛰어난 교수님들과 다양한 콘텐츠의 학습 경로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활용능력은 여전히 개개인의 몫이고 회사에 적응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처음으로 민원인을 상대하고, 업무를 위해 생소한 프로그램 작업을 해 나가는 것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주위의 도움으로 해결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더욱 더 배우는 자세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한 번 물어보면 그것을 기억해서 다음번에는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나의 업무 노트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응법으로 가득하다.

열 + 아홉 살 인생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능숙하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다. 열살에 생각한 어른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가야할 것만 같다. 목표를 정한 그때로부터 아직 아홉살밖에 먹지

않았다. 다만 어린만큼 더욱 도전과 실패를 경험할 충분한 기회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일단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하여 무엇이든 발로 뛰며 실천해 보라고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여기 저기 두드리며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결과가 쌓이고 확실한 방향도 방법도 보이는 법이다. 여러 번 실패할 때라도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실패한 만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찾아야 한다. 사실 거의 막무가내로 진학한 특성화고였지만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두드린 끝에 하나의 문을 연 셈이다. 아직도 닫혀있는 저 견고한 많은 문들, 앞으로 꼭 열어야 할 문들 앞에 오늘도 심호흡을 한다.

아직은 학생도 완전한 사회인도 아닌 인턴이지만 한국 전력공사에서 지금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 아직은 내가 맡은 일이 미미하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누구보다 소중하고 알차게 보내고 싶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사회에 나온 만큼 또 다른 노력으로 나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회사에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보면서 큰 용기를 얻었던 채용수기를 쓰고 있자니 가슴이 떨리기도 하지만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는다면 기쁘겠다. 이 나라의 모든 열아홉 살 노력하는 인생들이여, 파이팅이다. 

4

그리스의 기회라는 석상을 아십니까?

김○○/한국수자원공사

“이 석상은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없습니다. 또한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놓치고 말 것이다.’ 라는 교훈을 줍니다. 저는 기회가 오면 물고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K-water가 제게 주신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자신있게 내놓은 말이다. 면접 전까지는 비장의 무기라며 준비했던 이 멘트가 너무 당돌하진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 석자가 딱하니 걸려있는걸 확인한 순간 입에 미소가 걸리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이때는 꿈에도 몰랐다. 이 기회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고3, 그리고 사회인

7전 8기라고 했던가, 취업난은 대졸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무리 고졸채용이 대세라고 해도, 취업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았다. 아니, ‘높아 보였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결국엔

나도 당당히 K-water인이 되었으니까.

몇 번의 채용공고를 놓치고, 시험에 떨어지는 사이 우리 반의 빈자리는 하나, 둘씩 늘어갔다. 그리고 빈자리가 늘어갈수록 내 속은 타들어갔다. 같이 웃고 떠들면서 수업을 듣던 친구들은 어느덧 사회인이 되어 가는데 나만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나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K-water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계속되는 탈락에 지치기도 했고, 주위에서 남들처럼 대학진학을 목표로 두고 훗날을 도모하자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처음 지원서류를 작성할 때보다 의욕이 많이 떨어져있던 것 같다. 하지만 며칠 더 생각한 결과, 더 이상 내게는 물러날 곳이 없었기에 배수의 진을 친다는 생각으로 죽기살기로 준비했다. 인터넷과 선생님을 통하여 K-water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다. 손으로 몇 번씩 적어보았다. 내가 갈 회사다!라고. KACT라는 K-water 고유의 직무능력검사도 준비하였다. 촉박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았다. 모의면접을 준비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고 'K-water 입사' 라는 꿈을 열정으로 쫓아나갔다. 그렇게 배수의 진을 친 효과는 생각보다 뛰어났다. KACT부터 면접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땀내나는 노력에 보답하듯이 합격자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다. 더불어 학교 앞 플래카드도, 우리 부모님 어깨도 함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시작이 반’ 이라 했다. 그리고 K-water에서의 내 시작은 어린 나를 성장시켰다. K-water는 고졸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 적응을 위해서 6개월간의 인턴생활 동안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6개월간의 인턴생활은 적응과 변화의 연속이었다.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 정해진 과제, 정해진 시험범위 등 타의적으로 움직였던 10여 년을 뒤로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니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내가 그렇게 전망하던 사회인이, 어른이 되어간다는 게 이렇게 막막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선배들의 도움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나가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턴생활을 도와주신 20여 명의 멘토들이 새삼 감사히 여겨진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을 데리고 현장을 돌고,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쥐어주듯 설명해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직접 생각해보고 알아보게끔 과제를 내어주고 세심하게 피드백까지 해주셨으니 상당한 관심이 아니고선 안될 것이리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는데 어찌 노력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겠는가. 집에 오면 곧장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던 나는 SNS를 보는 것 대신에 정수장 매뉴얼을 정독하게 되었고, 게임을 하던 손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 위를 내달리기 시작했다. 나를 이렇게 바꾼 것은 K-water 고유의 고졸인재 육성프로그램과 선배님들의 따뜻한 지도 덕분이었다. 입사 전부터 사이버교육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집합교육과 현업과 학습을 병행하는 직무교육,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의 지도까지. 처음 사회로 뛰어들어 방향을 잃기 십상인 우리 또래들에게 이는 밝은 불빛을 비춰주는 등대이자, 갈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었다.

물론 평소보다 더 정신 없고 피곤하였지만 멀리 내다보면 내게 이로운 것이 더 많았다. 마치 폴더폰을 쓰다 스마트폰을 새로 쓴 것처럼 기존에 쓰던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공부해야 하지만, 더 유용한 것처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입사하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갈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학력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한 자기계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근 후 남는시간에 좀 더 노력한다면 업무와 관련된 공부를 더 하거나, 야간대학교에 진학한다는 등,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물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왕이면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두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해도, 업무속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기왕이면 이쁨받는 신입사원, 더 나아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한 누구든 공감하겠지만 원만한 대인관계, 책임감, 주인의식 등을 길러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모두를 다 갖추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갖추 수 있게 노력해보자. 남들이 느끼기

에 좋은 후배가 될 수 있도록.

첫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것처럼

주변을 잘 둘러보면 기회는 많을 것이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언젠가 올지 모르는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꽃단장을 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지 않게, 그 기회에 도전할 만큼의 합당한 조건을 갖추자. 가령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을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처럼, 꼼꼼한 사전준비가 기회 앞에서의 희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오는 타이밍을 사전에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두렵지 않을 것이리라.

자, 이 글을 읽는 당신. 이제 기회라는 석상을 아십니까? 

5

Challenge & Chance 고졸채용



김○○/한국토지주택공사

불과 얼마 전 교복을 입었으나 이젠 정장을 입고 학생들과 같이 출근하는 전 올해 거의 2년차에 접어든 저는 LH에 입사한 고졸 직장인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도전의 발걸음으로 시작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길, 나는 김 인턴!

중학교 시절 공부에 흥미가 없던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던 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 끝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설렘보다는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걷기에 걱정이 앞섰으나 입학 후 전공과목을 접하게 되며 공부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 반에서 하위권을 차지했던 나는 어느새 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모범생이 되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심부름을 비롯해 교내 간판 작업 등 갖은 곳은 일을 도와드렸던 난 어느새 교내에서 '김 인턴'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덕분에 학교 선생님의 대부분이 내 멘토가 되어주셨다. 내 첫 번째 도전은 소심했던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평범했던 나를 사회성을 겸비한 유능한 학생으로 만들어 줬다.

좌절 그리고 깨달음

중학교 시절 압류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의 학원 등록 권유를 거부했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했다. 집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에 써져있는 근심을 지우고자 자격증을 공부하며 진학이 아닌 취업을 하고자 했다. 그러던 중, 3학년이 되었을 때 은행에서 대규모로 고졸채용을 시행을 하여 지원을 했다. 그 당시 나는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사회성이 좋다면 인정을 받았기에 큰 이변이 없는 한 합격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나는 무너졌다. 자신감으로 착각했던 것은 자만이었고 우물 안 개구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같이 지원을 한 친구가 채용에 합격함으로써 비교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충격에 빠져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그 해 1년, 취업을 위해 많은 채용에 응시를 했으나 모두 낙방했고 좌절감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 없었다.

수능은 지나갔고 대학조차 진학할 시기를 놓쳐버린 나는 촉망받던 학생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학생이 되었다. 계속되는 좌절에 군 입대만을 생각하고 있을 무렵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LH에서 고졸채용을 한다는 소식에 꺼져가는 불씨 같았던 나의 의지는 활활 타올랐다. 마지막 도전이

라는 마음가짐으로 과거 실패요인을 분석하며 공부했고 많은 노력 끝에 합격을 했다.

내 두 번째 도전은 좌절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인고 끝에 그 어느 것보다 달콤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

사내대학, 날개를 달다

첫 직장에 입사 후 고졸이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조금이라도 업무지식을 더 얻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질문을 하며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 덕에 개인의 업무역량에 있어서 학력의 유무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과 고졸채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동료들에게 갖게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LH에서는 고졸인력을 위해 대학을 설립을 했고 면접을 통해 입학생을 한정시켰다. 취업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역량을 계발하고자 지원했고 경쟁 끝에 대학교에 합격했다. LH의 사내대학은 학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고졸 인력의 부담을 줄여 역량 계발에만 힘을 쓸 수 있도록 했고 다시 그 인력은 애사심을 갖고 회사에 헌신하는 상호간의 win-win의 방식을 갖춘 대학이었다. 또한 출석으로 인해 생기는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을 활용했고 실무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사내 전문가를 교수로 선임하여 기존 직원들에게 후배양성을 하도록 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줬고 신입 직원들은 생생한 경험에 입각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내 세 번째 도전은 아직은 펼치지 못하지만 노력하면 더욱 비상할 수 있

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Win-win의 고졸채용과 나아가야 할 방향

고졸채용이 사회에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현대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많은 빚을 지게되어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회사는 대졸 학력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많은 인건비가 나가게 되므로 채용 인력을 줄이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취업난으로 인해 몸살을 앓게 된다.

그러나 업무 능력에 있어 학력이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고졸채용을 시행하면 초기 약간의 교육 투자 비용만으로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동안 대졸자에 비해 적은 인건비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의 경제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절감과 취업난 해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전체적인 소비활동의 증가는 국력을 상승시킬 것이므로 고졸채용은 기업·사회·개인의 win-win 전략인 것이다.

선취업을 하게 된 고졸자는 후진학은 물론 역량계발에 많은 힘을 쏟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와 기업은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고졸채용이 꾸준히 시행된다면 앞서 말한 장점들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후배들을 위한 TIP


“포기하지 마라!”

취업 혹은 다른 꿈을 위해 준비하다보면 많은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 것이며 내면의 소리는 포기하라며 유혹을 할 것이다. 인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우리의 나이는 잠에서 깨어나 외출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아직 젊다. 한순간의 유혹과 시련에 빠져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의 말처럼 무지함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알라는 말이다. 취업과 꿈을 위해 도전하는 이가 스스로의 특징과 장단점, 활용방법과 극복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다.

Challenge & Chance 고졸채용

내게 도전이자 기회였던 고졸채용. 난 이제 더이상 고졸채용의 수혜자가 아닌 고졸채용의 성공을 입증한 보석이 되어 도전하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중한 원석을 발굴하고 싶다. 이것은 내게 기회를 준 것에 보답하고자하는 나의 목표이자 꿈이다. 

6

흔들리며 피는 꽃

손○○/근로복지공단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거다. 이 시인은 꽃이라는 매개물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어느 누구하나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이 없으니 좌절하지 말고 힘내라고. 고등학교 3학년 아직 어린 나이인 나에게 '네가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줄기를 세우기까지 많은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쳤다.

나에게 아버지가 두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나이는 8살 때였다. 친구들은 종종 나에게 "왜 너희 아빠랑 너는 성이 달라?"라고 물었다. 나도 왜 오빠와 여동생은 성이 같은데 나만 다른지 의문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럴 때면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곤 했다. 정확히 8살 되던 해 단 둘이 있던 날 엄마는 굳은 다짐이라도 한 듯 어렵게 말을 꺼내셨다. 나의 친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내가 갓난아기이던 겨울, 엄마는 눈에 멍이든 채 고작 기저귀 몇 장과 분유 한통을 가지고 도망치셨다고 했다. 그리고는 안 해본 일이

없으셨는데, 주방 설거지를 해주는 일을 하면서 5시간만에 분유를 주러 오니, 축축해서 다 새어나온 기저귀에도 울음 한번 없던 나를 가여워 하염 없이 우셨다고 하셨다. 그때 나는 엄마가 더 힘든데 왜 내가 가여워서 우셨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다짐했다. 빨리 커서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지켜 줄 거라고. 이것이 내가 특성화고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였다.

그 후 엄마는 오빠를 데리고 있는 아빠와 결혼하셨고, 여동생을 낳았다. 아빠는 나를 누구보다 예뻐하셨는데 나에게 손 한번 댄 적이 없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냐는 물음에 언제나 내가 제일 좋다며 환하게 웃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아빠의 웃음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착하셨던 아빠는 반복되는 사기와 사업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술이 늘어 갈수록 점점 아빠의 얼굴에서는 내가 좋아하던 웃음을 볼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은 빚쟁이들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게 되었고 우리 삼남매는 반복되는 전학에 결국 1년을 휴학하기로 하였다. 그점에 대해 엄마는 많이 미안해 하였지만 당시 어렸던 나는 학교를 가지 않고 실컷 잘 수 있는 것에 마냥 신이 났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집은 점점 정착이 되었고, 학교 또한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나보다 한 살 아래인 동생들과 다니는 거지만 더이상 전학을 안 다녀도 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학교를 다니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중 하나가 성적이었는데 엄마에게 백점 맞은 시험지를 보여주면 보는 둥 마는 둥 하였지만, 한쪽 상자에 모아둔 내 시험지와 상장들을

보며 엄마가 기뻐한다는 것에 더욱 더 열심히 하곤 했다.

중학교 3학년, 남부럽지 않은 우수한 성적과 선생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성화고로 진학을 마음 굳혔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는 인문계를 나와 시시한 대학을 가 취업을 못할 바에야 나의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러한 생각과 어릴 적 엄마에 대한 다짐이 나를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것에 한몫을 했다.

장학금을 받으며 들어간 고등학교에서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다. 지원을 받아 부모님께 부담이 덜 되었고, 독학으로 성적을 받는데 무리가 있었던 중학교와는 달리 학원의 도움 없이 오로지 공부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성적 또한 마음에 들었으며 무엇보다 전과 다른 심리적 안정감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그 안정감도 얼마 가지 않아 그간 부부싸움이 잦았던 부모님은 떨어져 지내시기로 하였고 나도 견디기 힘든 이런 환경 속에 어린 동생이 기여웠다. 예전 날 보며 기여워 하던 엄마의 심정도 이랬을까? 엄마는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셨는데 내가 학교에 갈 때쯤이면 자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왜 그리 초라해 보이던지. 예전에 회초리만 들면 세상에서 제일 무섭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 간데 사라진 점이 나를 서글프게 했고, 취업에 대한 생각을 간절하게 해주었다.

고등학교 3학년. 그간의 노력들을 펼치는 시작점, 떨리면서도 기대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성적이 높은 나를 은행에 추천하셨고 경험삼아 원서를 내어 최종까지 가게 되었지만 떨어졌다. 엄마는 자신의 채무와 낮은 신용


등급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며 많이 미안해 하셨는데,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미안해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괜히 울컥하여 오히려 엄마에게 화를 내었고 엄마에게 말 못할 상처를 주었다.

그 후 여러 곳을 지원하였지만 연속으로 떨어져 불안감에 지쳐갈 때쯤 운명같이 근로복지공단을 만났다. 스펙초월이라는 새로운 유형과 2주간 과제들을 해결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는 서류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쁘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면접을 보기 위해 울산으로 가는 차안에서의 긴장감과 면접장을 들어서서 그 순간의 떨림까지도 생생하고, 온 힘을 다해 꼭 붙고 말겠다는 간절함을 다 쏟고 나온 후의 결과는 나에게 합격이라는 큰 기쁨으로 보답해 주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에게 '장하다 우리 딸' 이라고 말해 주셨고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예상이 가서 화를 냈던 것이 다시 한번 미안해졌다.

나는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당당히 채용형 인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 아직 정규직이 된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정규직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고 직장 상사들께서도 응원해 주신다. 처음 정장을 입은 순간, 첫 출근 할 때의 두근거림, 첫 월급을 타 부모님께 고스란히 드린 그 순간순간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이 행복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꼭 정규직이 돼 어디서든 당당히 내가 다니는 직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의 힘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상도

못할 힘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묻는다면 이 때의 시간들은 힘들었던 때가 아닌 조금 덜 기뻐던 추억이라고 말할 것 같다. 그리고 예전의 나처럼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나 또한 처해진 상황들에 얼마나 원망하고 슬퍼하며 아파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 또한 내 삶의 일부분이었고 져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아프면 아파하고, 슬프면 울고, 답답하면 소리 질러도 된다. 다만 그 슬픔에 못 헤어 나오는 것이 문제지 전혀 자신의 힘든 상황에 속상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분명히 헤쳐나갈 힘이 있고, 어리다고들 말하는 나 또한 이겨내고 단단히 줄기를 곤게 세울 수 있었으니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 쉽지 않더라도 그것 또한 성장하는 과정일테고, 다 내 뜻대로 되라는 법이 없듯이 내게 주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마침내 내가 머릿속으로 바라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지긋지긋한 장마도 그칠 날이 오는 것처럼. 

7

사회란 미로 속 나만의 길을 찾다

이○○/한국전력공사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아이에게 삼천포의 화력발전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큰 공장 안에서 나는 커다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던 연기와 수 없이 쌓여있는 석탄의 산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배까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지만 이 시절의 기억은 나의 뇌리 깊숙이 박혔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에게 ‘한전’이라는 막연한 로망을 품게 만들었다.

이제 어린 시절 단순히 놀라웠던 기억이 나의 직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연한 시작, 그리고 겹쳐진 행운을 잡다

고졸사원으로 입사하긴 했지만 사실 나는 대학생이었다. 대학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나는, 아니 우리는 웬지 대학생살이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이라는 꿈을 꾸지만 현실은 그런 꿈들은 금세 자취를 감추게 될 정도로 차가운 곳이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도 고민이고,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하는 것도 고민이고, 시험도 고민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고민이며 결국에는 취업이라는 더 큰 고민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 고민을 하는 평범한 대학생이 나왔다.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한 후 책상에 앉은 나는 생각했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경영학을 전공했고 어떤 일이든 곧잘 한다고 자신을 생각했었지만 현실은 아무에게나 그 ‘어떤 일’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를 통해, 선배를 통해, 또 현실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처럼 자격증을 따고 어학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어 보였다.

어느 날처럼 학교 도서관으로 등교하던 길, 현란한 포스터 하나가 나의 눈길을 끌었고 거기서 ‘스펙초월’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스펙초월... 스펙초월...?! 이 나라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 ‘스펙’이라는 것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초월한다? 궁금증이 든 나는 곧바로 도서관에서 스펙초월 전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틀에 맞춘 듯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새롭고 도전적으로 보이는 이 전형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출고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나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고, 홍보하고, 성취하라고 외치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던 나에게 새로운 돌파구로 다가왔다. 마침 그때는 한전에서 스펙초월 전형 접수를 받는 주 월요일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써내려갔다. 교양시간에 몇 번인가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었다. 하지만 다들 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찾아보고 좋아보이는 글을 따오는 흔히 말하는 ‘복붙’ 대신 나 자신의 이야기를 최대한 진솔하

게 써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자소서라는 것은 쓰는 것만으로도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왜 한전에 들어가려 하는지 한전에 가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지 막연했던 어릴 적 꿈을 구체화 시켜갔다. 그렇게 작성한 자소서를 제출했고, 떨리는 발표 날, 자신은 없었지만 기대는 가지고 합격자 확인을 했는데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를 기다리며 내가 나아갈 길에 빛을 밝혀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이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게 그 중 한 번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번 기회는 꼭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전의 스펙초월 전형은 서류전형 합격 후 적성검사를 치르고 다시 실무진, 경영진 면접을 차례로 합격해야 했다. 남들보다 늦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준비했지만 준비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최종적으로 한전 고졸사원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행운이 겹겹이 쌓여서 한전이라는 커다란 문을 넘을 수 있는 계단이 되어줬고, 그 계단을 오르기 위해 용기 있는 한발을 내밀었기에 지금 내가 한전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졸사원? 아니 한전의 사원으로서

처음 합격을 한 후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의아해 했다. 아무리 한전이라지만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 고졸로 입사를 왜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인턴생활을 하면서 느꼈고 지금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고졸인지 대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이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누구도 비하하지도 평가 절하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전 직원 모두는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사명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나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다. 내가 고졸로 들어 온 이 길을 후회하지 않는 것도 누구 하나 나를 무시하지 않고 달리보지 않으며 한명의 직원으로 생각해주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고졸사원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다면 물론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 입사 동기 중 나처럼 다른 사회생활을 하다가 입사한 사람도 있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합격한 친구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나는 한 번 써본 자소서를 이 친구들은 수십 번을 고쳐 썼고, 내가 처음 풀어본 인·적성검사를 몇 권이나 되는 문제집으로 준비를 했으며 나는 처음 접해본 면접의 부담감과 떨림을 학교에서 느끼고 배우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와 다른 길을 걸어온 이 친구들에게 놀랐으며 또 동기임에도 대견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대학에 대한 동경도 가지고 있었고, 못해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런 동기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걸어온 이 길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꺼려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길에서 돌아와 너희와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나로서는 너무 부럽고 대단해 보인다고.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구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물론 지금 당장은 무섭고 또 불안하겠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회사에서,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어느 하나가 더 낫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길을 가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한전에 취업한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살밖에 안 된 내가 친동생같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조언을 했다.


나는 이 수기를 통해 혹시나 고졸취업에 대해서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사람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는 수 만 가지가 있다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이지만 한 가지 길만 가기에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고.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고졸사원이라 일을 못 한다는 말은 옛 말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 온 친구들은 나보다 컴퓨터를 더 잘 다루기도 하고, 더 말을 잘하기도 하며, 어린 패기로 더 자신감 넘치기도 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이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항상 되새기고,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사기업처럼 필터링이 있는 채용이었다면 이처럼 다양한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길로 왔지만 같은 곳을 향하기에 서로 배우는 점도 많고, 도울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고졸사원의

로 입사한 우리의 경쟁력이다.

행운을 잡았다면 이제 더 노력하자

요즘 초등학교 때 발전소를 봤던 기억이 가끔 떠오른다. 막연히 한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만 품고 있었던 내가 남들보다 좋은 기회를 만났고, 잡았고, 나아가고 있다. 모든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 어릴 적 기억은 막연한 공기업 중 한전을 선택하게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나는 지금 한전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번 수기를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처음 한전에 입사할 때 생각했던 좀 더 국민과 가까워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업과 국민의 관계를 만들자, 청렴한 기업문화를 만들어보자던 나의 포부를. 한전은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다.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청렴문화를 위해 사원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의 톱니바퀴로써 혹은 필요하다면 하나의 모터로써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

앞으로 인턴에서 정직원이 되기까지는 아직 관문이 남아있다. 과제도 제출해야 하고, 시험도 쳐야하고 또 업무도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놓지 못하고 더 더 노력해야 한다. 뜻밖의 행운과 나를 챙겨주시는 많은 선배님들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회 초년생이 된 나를 향한 가족들의 믿음까지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다 갖추어졌고 이제는 나태해지지 말자고 무수히 되새기면서 이 모든 조건이 겹겹이 겹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 나는 내가 한전에 큰 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 어느 하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 보겠다. 

8

원석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곳, 한국광물자원공사



이○○/ 한국광물자원공사

한 번의 탈락으로 너무 좌절하지도 한 번의 합격으로 너무 자만하 지도 않기

“10월의 탄생석 오판은 각도와 조명에 따라 다양한 빛을 냅니다. 저의 탄생석 오판처럼 넓고 많은 빛을 낼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최종면접에서 덜덜 떨면서 한 자기소개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저 순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떨리고 간절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무사히 지난 나는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는 곧 2년차가 되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동반성장팀 주임이다. 고졸 취업을 희망했고 다행히도 그 결심을 맺어 사회인의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다. 한 번의 탈락으로 너무 좌절하지도 한 번의 합격으로 너무 자만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나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취업이 늦게 된 편이었다. 친구들의 취업을 항상 내일처럼 축하해 주었지만 내 짝꿍이, 내 앞에 앉은 친구가 먼저 취업이 될수록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꼈다. 매일

취업정보실에 앉아 수백 번도 더 고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고치고 취업정보 게시판을 보며 이 중에는 내 직장이 있을까 하며 매일을 불안해했다. 아직 넓은 미래를 바라볼 능력이 없었던 그때의 나는 면접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생각하며 큰 좌절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와는 정 반대로 깊은 자만심에 빠진 친구도 있었다. 이미 한 회사에 최종합격을 한 친구는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기간 동안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합격이 취소된 것이다. 지나친 나태함과 자만감이 합격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이처럼 도를 넘은 자만감은 초심을 잊게 하고 지나친 좌절감은 자신감을 무너뜨린다. 그때의 나를 떠올려보면 그런 의미 없는 자만과 좌절은 나의 취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 고졸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처음 취업에 도전했던 그 열정과 노력으로 계속 도전하기를 바란다.

불타는 금요일 밤에는 학원으로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하고 회사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반드시 하리라 장담했었던 일들을 수행해야만 했다. 먼저 내가 맡게 될 회계업무를 위해 취업준비로 그간 소홀했던 회계 문제집과 공책을 다시 펴들었다.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사내 MIS 회계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에 맞춰진 계정과목과 예산 등을 공부했다. 특히 본 회계 이외에 일부 팀만 사용하는 갱도굴진회계를 이용하게 되어 굴진회계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초반에는 회계팀과 노무복지팀을

아주 귀찮게 했다.

이렇게 회사업무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한번 나의 공부의지를 자극시킨 일이 있었다. 해외사업팀에서 근무 중이신 회사 선배의 해외출장 준비를 도와주게 된 것이다. 국내사업팀에 있었던 나로서는 외국인과 통화할 일도 메일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필요성과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선배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내가 받게 된 한통의 전화와 영어메일은 이런 나의 안일한 생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해외출장 일정과 요구사항을 영어로 설명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는 나를 보며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나는 그날 바로 소규모 그룹의 회화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두 번의 정규 수업은 의무였고 일주일에 최대 5번의 프리토킹수업이 자발적인 신청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 나는 매주 정규수업 이외에도 꼭 4번 이상의 프리토킹 수업을 들었고 주말마다 무료로 제공되는 토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나는 3개월 만에 두 번의 레벨 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학원을 이용해도 부족한 부분은 사내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듣는 회계특강과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전화영어, 사이버 강의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

일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순간순간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훗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타는 금요일 밤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고 영어 학원으로 향하는 발길이 처음 회사를 들어오면서 내 자신과 회사와 했던 약속을 지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고졸취업을 하게 될 친구들도 일과 학업을 잘 병행하여서 더 넓고 많은 미래를 펼칠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란다.


마스코트 광물이

‘광물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입사한 후 친구들과 사이에서 생긴 나의 별명이다. 나의 별명처럼 나는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같은 존재가 되어 대한민국 자원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지만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고졸 취업자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내가 속해있는 동반성장팀은 국내광산의 재해예방과 발전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과 갱도굴진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술직군의 팀원들이 많고 전문용어와 장비이름이 필요한 업무들이 많다. 평소 나의 업무는 회계와 사무적인 일이지만, 광산업체의 문의에 응대하고 출장 시의 간단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술직군의 팀원과 함께 석회석, 백운석 등의 다양한 광종의 광산을 직접 들어간 적이 있었다. 넓은 갱 내에는 곳곳에 장비들이 흩어져있어 모든 장비들을 다 검수하려면 폭파 시간이 되기 전까지 서둘러 갱 내를 둘러보아야 했다. 갱 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최대한 빨리 장

비를 찾아야 했지만 장비이름과 실제 모습에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선배와 업체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폭파시간이 임박하여 장비를 다 둘러보지 못한 채 갭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업무를 할 때에 경영과 회계가 전공이었던 나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익히고 사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부를 해왔다. 또한, 앞으로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이용하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하지만 현재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열려있는 과는 회계, 경영 등 일부 학과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지질학이나 에너지공학과 등 학과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기를 희망한다.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II PART

청년인턴



1

전반전을 마치고

김○○/근로복지공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입지원부 김○○입니다.”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 목소리가 첫인상을 전달하는 공공기관이기에 나에게 있어 이것은 쉽지 않은 문장이었다. 첫 민원인을 응대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이 짝막한 문장을 되뇌고 또 되뇌었는지 모른다. 첫 민원 전화를 받았을 때 내뱉은 인사말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청년인턴으로 사회에 들어선 2개월차 햇병아리지만 그만큼 속속 성장하는 내 모습을 느낀다. 꿈만으로도전한 청년인턴, 지금도 나의 꿈은 청년인턴 생활과 함께 크고 있다. 이제 막 전반전이 끝났을 뿐이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인생에서 선택은 중요하다. 특히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나의 삶의 방향은 오래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었다. 나는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대학교 4년 동안 물리치료학을 배우며 실력을 쌓았

다. 나의 손길 하나로 환자들이 조금씩 변화해간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에는 항상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돈’이다. 막대한 치료비용, 그리고 가정의 생계비용에 대한 문제 등이었다. 갑작스런 질병,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물론 보험 혜택과 국가적 지원으로 어려움이 경감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들을 돕는다는 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나의 꿈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치료’에서 ‘복지제도’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이제 새로운 경기장을 찾을 때였다.

경기장에 들어서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해온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었다. 병원에 취업하기를 원하던 내겐 관련 정보도 부족했고 흔하단 토익 점수도 변변치 않았다. 짧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육체적으로도 고행이었다. 더욱 힘든 점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였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지인의 취직 소식, 병원에서 들어오는 취직 제의들. 하지만 나의 확고한 목표의식을 다잡고 다잡아 열심히 준비하였다. 올해 상반기 4대 보험 관련 공공기관에 원서를 썼고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최종면접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면접에서 관련 업무와 경력에 대한 질문을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에겐 경험이라는 것이 부족했다. 그렇다. 본 경기를 뛰길 원한다면 적어도 운동장에서 연습경기를 하며 몸을 풀어줘야 한다.

워밍업의 기회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이 부족했다. 그런 내게 ‘청년인턴제도’는 많은 것을 줄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취업스터디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청년인턴이 부족한 사회경험을 채우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권유했다. 상반기 취업에 고배를 마신 내게 근로복지공단 하반기 청년인턴이란 기회가 찾아왔다. 요즘 취업준비생에게 인턴이라는 제도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그 기간에 차라리 소위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인턴이라는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운동해본 사람은 다 안다. 워밍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 경기 이전에 따뜻하게 몸을 덥혀두는 것은 선수를 위해서도 경기를 위해서도 필수이다. 청년인턴의 경험은 스펙과는 다른 무언가의 차이점을 만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첫 출근-연습경기의 필요성

막연히 꿈꾸던 자가 눈을 뜨고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딛는다는 것은 정

말로 긴장되는 일이다. 자유로운 생활에서 조직사회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책임감을 넘어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부서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선배님들의 배려와 인턴적응을 위한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손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나의 명패가 있는 자리에 앉으며 ‘인턴 신분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여 공단에 피해를 주지 말자’라고 다짐했다. 모든 공공기관의 인턴의 업무는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스캔, 복사, 접수, 편철, 민원인 안내 등 부서 내의 전반적인 일들을 보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 보조업무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 물을 수도 있다. 이에 나는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다. 하나의 일을 도맡아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일들을 보조하다보면 부서 내 전반적인 업무를 익힐 수 있다. 부서의 구성원이 되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청년인턴이 주는 경험의 기회이다.

전반전

내가 일을 하게 된 부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지원부, 행정복지팀이라는 곳이었다. 나는 근로복지공단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단순히 산재보험뿐이었다. 병원에서 일을 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며 재활을 하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편협한 생각이었다. 행정복지팀의 주요업무는 퇴직연금, 생계비대부 등과 같이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는 곳이었다. 나는 이

곳에서 일을 하며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환자들을 보며 좀 더 좋은 제도가 없을까하며 고민했던 나로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보며 많은 배움이 되었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일을 통해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년인턴을 통해 자신의 하려는 직업이 자신의 꿈과 같은 방향인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청년인턴의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나를 만족스러운 전반전이였다.


전반전을 통해 느낀 개선방향

청년인턴제도는 2008년 말에 시행되어 6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멘토링 제도처럼 청년인턴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는 청년인턴들이 현장에서 일을 배워나가기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나는 이제 막 청년인턴 2개월차지만 짧은 기간에 걸쳐 느낀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청년인턴 제도를 확실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많은 청년인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취업이다. 많은 청년들이 공공기관의 입사를 꿈꾸며 관련 실무 경험을 얻고자 청년인턴에 지원한다. 공공기관은 정규직 모집 중 20%를 청년인턴경험자를 모집하지만 실제수치가 그 이하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인턴에 대한 우대기준이 공공기관마다 다른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인턴에게 한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민

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청년인턴의 대부분은 이제 막 사회에 나선 사회초년생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일에 투입되기엔 앞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면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들이 실무경험을 쌓고 있다. 그들은 인턴업무와 취업준비에 대한 것으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연결해줄 수 있는 고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서로 교류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의 청년인턴들을 모아 교육활동 및 취업세미나 등을 실시한다면 교류를 통한 취업정보공유 및 업무에 대한 조언을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준비된 인재를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길러진 청년인턴들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공공기관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이 더 많이 준비되길 바란다.

후반전, 새로운 시작

어느덧 인턴생활의 절반이 지나간다.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라커룸에서 앞선 경기를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선수의 마음이다. 하지만 나 혼자 라커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감독이신 멘토께서 나의 부족함, 후반전에서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다. 후반전이 끝나면 나의 꿈을 향한 새로운 경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체득해서 새로운 경기에 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년인턴

의 경험은 분명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2

철없이 행복한 인턴이 근무경력 5년차 선임이 되기까지

김○○/KDI 국제정책대학원

“오늘 마지막 근무 날, 김 과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다. 1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졌다. 회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사하다.”

나의 첫 직장, 한국관광공사. 나는 정부가 처음으로 청년인턴 제도를 도입했던 2009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철없이 아르바이트 한번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내가 처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나에게 공사 생활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멘토·멘티 제도-저도 김대리가 되고 싶어요.

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인턴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서 수많은 제도를 신설했다. 청년인턴-부사장님과의 간담회, 청년인턴 워크숍, 청년인턴 업무연수 및 평가시상 등. 업무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멘토·멘티 제도였다. 대리급 직원과 인턴을 1:1로 매칭을 해주어 업무와 회

사 생활 전반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는 제도였다.

나의 짝으로 맺어진 정대리님은 정말 천사가 아닐까 할 정도로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단순히 복사 한장을 시키시더라도 지금 이 일은 어떠한 프로젝트고, ○○씨가 하고 있는 복사는 어디 자료로 들어갈 것이고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나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정말 마음이 동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서류철도 할 줄 몰라서 칼로 종이 낱장을 잘라서 끼워 넣고 있던 나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업무의 'A to Z'를 알려주셨다. 지금 회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업무 지식의 기본은 모두 정대리님에게서 얻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내 꿈은 저렇게 후배에게 친절할 수 있는 '김대리'가 되는 것이었다(슬프게도 지금 회사는 대리라는 직급이 없는 곳이라 김대리의 꿈은 이룰 수는 없게 되었다.).

주인의식-세계에 한국을 알리다

나는 글로벌컨텐츠팀에서 근무를 하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 처음 인턴을 시작했을 때는 한 장짜리 리플렛을 제작했다. 그 다음에는 10장짜리 화보집, 그 나중에는 230장짜리 영어로 된 한국 가이드북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국어, 독일어, 아랍어 등 10개 국어로 한국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각 언어를 담당하는 번역가와 감수자들을 관리하면서, 정말 어떤 날은 일하느라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것을 잊기도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야근을 하며 책상과 캐비닛에 온통

가이드북 복사본이 쌓여 서랍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다. 읽지도 못하는 아랍어와 독일어 책자를 안고 숨은그림찾기처럼 눈알이 빠져라 오·탈자를 찾아냈다. 내 자식과 같은 가이드북이 나와 전 세계 27개국 해외지사로 배포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뿌듯해 마음이 몽클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다보니 내 나라를 위해 나의 일을 한다는 주인의식이 자연스레 길러졌다. 업무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무엇보다도 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체적으로 일을 한다’는 주인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게끔 해준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으로

나는 현재 총리실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매년 70개국 정도에서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전 세계지사들과 함께 여러 언어권을 상대로 일했던 글로벌한 업무경험을 살려 이곳으로 이직하게 된 것이다. 특히 비슷한 정부기관이다 보니 업무의 진행 방식이 비슷해서 업무처리에 속도가 붙는 것 또한 큰 소득이었다. 이곳에 우리나라 정부기관 공무원들 역시 수학하는데, 작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같은 팀에 근무했었던 심과장님이 파견을 오시기도 했었다. 심과장님께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하던 인턴이, 이제는 당신의 대학원에 교직원이 되어 도리어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다.

인턴-정직원으로의 연결고리 더 늘었으면

청년인턴을 하면서 좋은 상사들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맡아 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다. 후배들이 종종 “청년인턴을 하느니 바로 정규직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곤 하는데, 그럴 때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꼭 청년인턴을 마음껏 활용해 보라고 조언한다.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던 사회생활 초짜였던 내가 한국관광공사가 아니었다라면 업무의 기본지식, 글로벌한 감각, 무엇보다 좋은 인맥들까지 얻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년인턴제도가 실제 취업으로 더 활발히 연결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같이 청년인턴을 했던 동료들 중 한국관광공사에 실제 채용이 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소수에 그쳐 아쉬움이 다소 남는다. 청년인턴 중 우수한 인재로 판단되는 경우는 정규직 직원으로 적극 채용을 한다면 노사 모두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철없이 행복한 인턴과 근무경력 5년차 선임 사이

나의 처음 사회생활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청년인턴으로 시작하게 되어 나는 얼마나 행운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하루는 회사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하면서 기대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가 벌써 5년이 지났다. 선임으로 승진도 하고 후배들도 한참이나 생겼다. 우리 회사의 청년인턴들에게도 기대되는 회사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나는 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한국관광공

사에서의 청년인턴 경험은 나에게 언제나 초심을 다지게 해주는 보석같은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마지막 근무 날, 김과장님에게 받았던 편지로 이 수기를 마무리 해본다.

“○○씨, 팀장님께 취업 이야기를 들었지. 듣고서 얼마나 기뻐는지. 잘 하셨어. 이래저래 쉽지 않은 시기에 ○○씨가 많이 도와줬기에 해나갈 수 있었고, 일을 맡기면서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많지. 이제 간다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보다 잘 되었다는 기쁨이 더 크구먼. 수고 정말 많았어. 나중에 다시 보자이~” 

3

880시간의 선물

정○○/국민건강보험공단

‘5개월이면 자격증도 따고 토익 점수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인데……. 인턴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과 걱정이 처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턴 사원을 지원할 때부터 최종 합격하여 첫 출근하는 날 아침까지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걱정은 첫 출근과 함께 사그라졌다.

첫 출근하는 날, 여러 직원분의 환영을 받고 건강보험 자격징수부로 발령받아 사무실 책상에 앉게 되었다. 공공기관 취업이 목표였던 나에게 그런 자리는 가슴 벅차고 열정으로 가득차게 하였다. 게다가 내 사진과 이름이 박힌 사원증을 받았을 때의 그 감동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매일 목에 걸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자랑스러웠고 ‘이 사원증을 걸고 있는 동안 공단에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고 다짐했다.

지사 내부 사정으로 한 달여 간의 자격징수부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부서를 옮기게 되었고 모든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되었다. 어리둥절했던 모습은 여전했지만 친절하신 직원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배려로 새 부서에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민원 상담에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까지 업무의 중요도는 높아졌고 범위는 커져갔다. 나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고 그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점점 스스로 업무를 찾아 해결해나가는 데 익숙해져갔고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인턴사원으로서의 공단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다가왔다.

사실, 청년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 붙이고 일하기가 힘들 때도 있었다.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계약이 끝나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랐던 날도 있었다. 분노를 쏟아내는 민원인을 상대할 때면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즐거움이 더 컸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신 한 어르신을 방문 조사하던 날, 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인연을 인턴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15평이 채 안되어 보이는 좁은 집에는 파킨슨병으로 꼼작 못하는 할머니와 본인의 몸도 성치 않으면서 그 할머니를 수발하는 할아버지가 함께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최근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어 거동은 커녕 이제 음식조차 씹어 삼키지 못할 정도로 몸이 굳어져 산송장처럼 침대에 누워계셨다. 인정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조사항목을 물어보는 질문에 한마디도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망가진 자신의 몸에 화가 나신 것인지 아니면 매일 힘들게 수발하는 할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에 서러우셨던 것인지 할머니는 갑자기 영영 울기 시작하셨다. 나도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안간힘을 썼다. 조사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함께 조사를 간

과장님은 할머니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단 몇 달 며칠이라도 할머니가 마음의 짐을 덜고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다행히 할머니는 등급을 인정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할머니의 식사와 목욕, 대소변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된다. 본인의 허리도 좋지 않으면서 구부정한 몸으로 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할머니를 안고 화장실로 데려가기를 반복하던 할아버지도 이제 본인의 건강을 돌볼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것이다.

그날 이후, 이렇게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온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민봉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원이 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이런 기관에서 인턴으로 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고 세상 온천지에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을 자랑하고 싶었다.


막연하게 공공기관 취업이 목표였던 나에게 하나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오히려 취업 준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업무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나마 잡혔으며 조직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이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새롭게 다가왔다. 그동안 노인과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무관심했었지만 5개월간의 인턴 경험을 통해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기대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 확실히 달라진 것은 일을 할 때의 마음가짐과 대처하는 자세인 것 같다. 그리고 감히 장담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업무의 능률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고, 나아가 기관의 비전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같이 공유하는 직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청년인턴들의 소중한 경험은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도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수많은 청년인턴들이 그 소중한 경험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끝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상반기에 채용된 청년인턴 총 580명 중 4.6%의 소수에게만 정직원이 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게다가 2013년에 청년인턴을 수료한 또 다른 580명에게까지 같은 기회가 주어지니 실제로는 2.4%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해당기관의 수요인원을 고려한 채용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청년인턴들에게 해당기관 취업의 문이 좁은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단지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얻은 값진 경험을 관련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하루하루 헤매게 될 상황이 당사자로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 우리 청년인턴들에게 그 기회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전해본다.

지난 5개월간 공단에서 보낸 시간을 계산해보면 약 880시간 정도이다. 나는 이 시간으로 평생 가지고 갈 선물을 샀다.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은 곧 나의 삶에도 영향을 끼쳤

다. 궁극적으로 내가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다시 5개월 전으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준 청년인턴제도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나를 믿고 인턴으로서의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도 ‘스펙 쌓기’에 가까운 시간을 쏟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전하고 싶다. 880시간이 주는 선물, 어떤 선물인지 받아보고 싶지 않느냐고 말이다. 

4

제2막을 위한 제1막의 화려한 마무리, 청년인턴



김○○/근로복지공단

제1막 제1장—두 갈래의 길

2012년의 겨울, 나는 선택의 두 갈림길의 앞에 섰었다. 하나는 내 직업과의 행복할 수 없는 동행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시의 내 직업과 이별을 하고 새 직업을 찾아 나가는 길이였다. 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꽃밭이지만 내겐 살얼음판이었고, 후자는 눈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지만 그 끝은 어찌될지 알 수 없는 길이였다. 결국 나는 모험을 택하기로 했고, 다시 취준생의 신분으로 돌아가 다시 내 진짜 직업을 찾는 고행길에 올랐다.

제1막 제2장—이끌림

내가 고행의 시작으로 사표를 쓴 후, 집으로 여러 통지서들이 날아왔다. 실업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고, 보험료 납부도 중지됐다는 내용을 참 친절하게도 써 놓은 그 통지서들을 한 글자씩 읽으며 나는 재취업의 의지를 불태웠다. 지금까지는 남을 속이며 받은 돈으로 살았으

니, 앞으로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며 떳떳하게 돈을 받아 살겠노라며 이를 부득부득 같았다. 그러나 마음처럼 나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백수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과의 대면이었다. 내가 후회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은 이후로 약 한 달간을 취업사이트도 쳐다보지 않고 우울함에 방황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고쳐먹은 나는 다시 취업사이트를 보기 시작했고, 근로복지공단의 청년인턴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약 1년 전만 했어도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하니까 좋기는 한데, 인턴인 게 싫어. 내가 인턴생활을 해 봐서 아는데, 인턴이란 정말 할 게 못 돼. 직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위치야.’라며 실끔해 했을 터였다. 그러나 이곳에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꼈던 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나아가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이곳에 차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 최선을 다해 자소서를 써내려갔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모두에서 합격을 받아내며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제1막 제3장-다시 입게 된 정장

8월 19일, 나는 오랜만에 출근을 위해 정장을 입었다. 아 얼마 만에 걸여보는 출근길인가! 얼마 만에 접해보는 사무실인가! 여기 이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지원부에서 내가 맡은 일은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나는 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일을 하는 내내 행복하다. 매일 민원 서류 접수, 민원인 안내, 스캔 등의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데, 그 중 특히 민원서류 접수는 내 판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정확히 하고자 노력을 한다. 가입지원부의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 및 부과의 첫 걸음이 바로 민원서류의 접수라고 생각을 하니, 사소하지만 대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나브로 일이 늘기 시작했고, 남는 업무 시간을 조금씩 사무실 환경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모자란 사무용품을 채워 넣고, 사무실 곳곳을 정리하며,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이곳저곳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작은 도움이지만 다른 분들의 업무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것이 기뻐고, 내 덕분에 조금의 불편함을 덜었을 직원들은 민원인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행복해지기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나의 행복과 일은 점점 늘어만 간다.

지금의 나는 입사 2개월차의 인턴이다. 민원인을 보거나 전화 벨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던 예전의 나와는 달리, 이제는 민원인에게 따뜻한 미소와 차 한잔을 건네고 간단한 전화문의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내가 없을 때 나 대신 업무를 해 줄 수 있는 대체인력도 생겼다. 내게 남은 시간동안 민원인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간접적인 도움이 아닌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편람을 읽으며 지식을 습득하고 - 실무편람은 전에도 몇 번 보기는 했다 - 기회가 된다면 출장도 따라 나가며 공단의 업무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내 사회생활의 제2막이 여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인터미션-청년인턴 제도에 대한 제안

인턴생활을 2개월도 채 하지 못한 내가 감히 청년인턴이라는 제도에 대해 제언을 한다는 게 좀 우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 청년인턴만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나 기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공단의 청년인턴공고를 접하게 된 후 나는 여러 기관의 청년인턴 운영제도를 확인하였다. 청년인턴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그들이 연계 되는 것은 천차만별이었다. 물론 각 기관의 업무와 개성에 따라 운영방향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적어도 공통된 몇 가지의 운영지침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 지침의 첫 번째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다. 각 기관에서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났다. 나의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하루만 받고 끝냈는데, 어떤 인턴들은 일주일간 교육을 한다고 했다. 인턴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시수는 정해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교육시간의 운영은 기관의 재량일 것이다. 나는 이 운영에 약간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너무 단기간에 이수한다면 교육생들의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이고, 교육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면 인턴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이다 '교육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하되, 그 시간은 18시

간 이상으로 정한다.’는 식의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인턴 교육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청년인턴의 혜택과 관련된 것이다. 어떤 기관은 서류전형에 아예 면제를 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에 약간의 가점을 부여하기만 하는 것에 그친다. 이름은 다 같은 청년인턴인데 받는 혜택은 판이하다. 진정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젊은 인재들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청년인턴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 하나의 통일된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마지막으로는 인턴 수행 이후의 평가이다. 우리 공단의 경우 인턴들은 인턴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과, 제도의 부족한 점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내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곳에 실명으로 냉철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강심장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적어도 모든 청년인턴들에게 평가지를 수리할 때에는 각 기관별로 익명으로 보고서를 수집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핵심은 ‘각 지사별’이 아닌 ‘각 기관별’이다.) 그렇게 모은 보고서에는 분명 하나쯤은 수용해봄직한 비판이 있을 것이다.

둘, 청년인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아직은 내가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이라고 주변에 말을 하며 이것을 시도해 볼 것을 주변에 권했을 때 듣는 말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혹은 ‘글쎄’라는 식의 답변이 지배적이다. 이 제도를 아는 몇 안되는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조차 차갑기만 하다는 소리다. 청년인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경험과 혜택보다는 단기간의

경험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이 되었기 때문이리라. 청년인턴 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이 싸늘한 시선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고, 그를 통해 더 우수한 인력을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당겨올 수 있을 것이다.

심호흡-나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많은 이들이 지금의 나와 같이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그로 인해 불안하고 또 불안할 것이다. 인턴을 해도 ‘과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등의 의문도 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을 믿고, 지금의 이 느낌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찾아 나서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다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 시간은 보석이 되어 선물로 돌아올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렇기에 나는 아직도 지금의 내 위치가 실망스럽지 않고 매일 가슴이 두근거린다. 올해 8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이어질 나의 청년인턴 생활은 앞으로의 내 삶의 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 내 사회생활의 제2막을 더 화려하게 열고 끝낼 수 있도록 내 일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5

취업준비생 끝판왕의 한국전력공사 입성기

김○○/한국전력공사

나는 취준생 끝판왕

스물아홉, 여자, 비상경제, 외국 경험 없고 영어 못하는 영어영문학 전공자, 졸업한지 만 3년. 이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나는 그야말로 자타공인 '취업준비생 끝판왕' 이었다.

오랜 구직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자존감이었다. 여느 대졸 취준생들처럼 나 역시 수 백 통의 자기소개서를 접수했다. 이 중 면접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았으나, 어렵게 기회를 얻은 면접에서는 “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인가”,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왜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는가”라는 등의 질문은 피해갈 수 없었다.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각종 회사로부터의 거절이 이어질수록 나는 정말 그리도 쓸모 없는 사람인가 하는 우울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내게 취업이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가치를 창출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일’ 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했다.

2013년 5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년인턴 합격 메일을 받았다. 처음에는 졸업 후 공백 기간을 채우고, 지원서에 경력 한줄 더할 요량으로 지원했던 것이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한 청년인턴이 내 인생을 180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 지금 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5개월이 나에게서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경험이었으며 평생 직장을 찾는 첫 걸음이었다고.

청년인턴의 세 가지 선물

불순한 마음으로 시작한 청년인턴이었지만, 청년인턴 제도는 내게 천금, 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선물을 안겨주었다.

첫 째로 자신감이다. 그 당시 내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일터에서 한 사람의 몫을 분명히 하고 있다 느낄 때 비로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준생들은 자신감을 잃고 마음의 병을 앓기 쉽다. 상품을 가장 잘 파는 장사꾼은 내가 파는 상품이 최고로 좋다고 믿는 사람이다. 같은 이유로 구직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나부터가 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에도 '나' 라는 상품을 판매하기를 머뭇거리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후배들이 취업을 위한 조언을 구하면 나는 이러한 이유로 지체 없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인턴 제도를 추천한다.

둘째로 아주 의외의 적성 확인이다. 서양에는 인턴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효율적인 채용이 이루어진다. 구직자는 적성에 맞는 일을 마음껏 모색

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채용과정에서 ‘묻지마 지원자’를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청년인턴 제도는 한국식 인턴 제도의 초석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고객지원팀으로 근무하면서 서비스 직무라는 의외의 적성을 찾았다. 지금도 많은 동료들이 종합봉사부서나 고객지원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가장 고되다고 말하는데, 나는 오히려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곤 했다.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시는 할머니께서 창구 여직원들에게만 몰래 주는 것이라며 주고 가신 커다란 애호박이 생각날 때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진다.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었기에 대졸 공채에서 면접을 볼 때 직무 적성에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었고, 이것이 최종합격에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이다. 5개월을 딱 채워 한국전력공사 서인천 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직무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대외적으로 비취지는 모습이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함께 근무했던 인턴 중에는 공기업 특유의 조직문화에 어울리지 못한 친구도 있었다. 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직문화가 나와 잘 맞았고, 이미 이것을 경험했다는 경력은 면접관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정직원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채용과정에서 큰 메리트가 된다. 조직 내부에 있기에 채용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직원들의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인턴은 내게 한국전력공사라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친절함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2014년 5월 19일. 청년인턴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첫 발을 내딛은 지 만 1년이 되기 직전. 나는 비로소 한국전력공사의 신입사원으로 인재개발원에 입소할 수 있었다. 6주의 교육을 마치고 서산으로 발령받아 정신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며 초심을 잊고 하루를 불평으로 채울 무렵, 한 통의 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작년 이맘때의 나와 같이 작은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대형 청년인턴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 메일을 읽으며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정식 직원이 되고 싶은 그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금 막 입사했다는 14사번들에게 메일을 보냈을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친구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글을 적어 응답해 주었다.

8월에는 내가 청년인턴으로 일했던 서인천 지사에서 청년인턴들을 위한 워크숍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청년인턴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선배로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지나치는 비정규 직일 수도 있는 청년인턴들에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며 취업에 도움을 주려하는 회사의 관심과 애정에 나는 마치 내 일처럼 고맙고 감사했다.

살아있는 증인, 외치다

청년인턴으로 근무했다면 그렇지 않은 경쟁자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것이 현실성에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청년인턴을 하기 전까지는 면접관들의 무슨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매우 비현실적인 꿈과 이상을 그렸던 것 같다. 해외사업을 하거나 뛰어난 기술을 발명해내는 것과 같은. 하지만 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귀찮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도 필요하기 마련이다. 청년인턴으로 조직의 내부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회사의 입장에 서서 봐야 한다. 면접장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본사 해외사업팀에서 미래를 그릴 때, 나는 2차 사업소의 종합 봉사팀에서 나의 미래를 그렸다.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회사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힘들게 홀로 걸었던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후배, 동생,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스물아홉 비(非)상경계, 졸업한지 만 삼년이 되었지만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살아있는 증인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한다면 당신은 당연히 청년인턴 제도를 누려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도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어떤 조직문화에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면, 나는 기꺼이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추천하겠다. 

6

청년인턴, 시작점에서 목적지를 찾다

김○○/근로복지공단

2013년 10월 1일, 근로복지공단의 청년인턴으로 첫 출근했던 시간으로부터 딱 1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인턴으로 근무했던 바로 그곳에서 신입직원으로써 업무를 배우며 인턴 후배들을 챙기는 감회가 새롭다. 입사 2개월차, 아직은 주임이라는 호칭이 어색하고 서투르지만 마음이 가벼운 것은 인턴 때 다짐했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공(公)의 가치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아버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본인의 일과 가족에게 무엇 하나 소홀함 없는 그야말로 최고의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근로자였다. 주말 저녁이면 어머니가 차린 거한 저녁상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 꽃을 피우던 화목한 가족이기도 했다. 그런 우리 집에도 한번씩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었는데 바로 ‘돈’ 때문이었다. 나가야 할 돈은 고정적이었지만 유독 고정적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수입. 어머니의 맞

별이에도 불구하고 겨울이면 쉬는 날이 부지기수. 그나마도 몇 번이고 밀리는 급여와 그림에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키우고 싶었던 부모님의 바람들은 화목한 가정에도 몇 번이고 큰 너울을 드리웠다. 그래서였을까, 언제부터인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의 대접을 받는 세상을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안정적인’ 생활을 꿈꿨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입학해서 다른 분야에 눈 돌릴 새 없이 그 꿈을 위해 정신 없이 달렸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했고 원하는 공직의 꿈을 위해 시험공부를 했다. 그러나 매년 시험이라는 문턱 앞에 고배를 마셨고 그 앞에서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고 자괴감에 휩싸이기를 몇 번, 급기야 내 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공직(公職)이 맞을까?’

그 무렵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창업하셨고 이전보다 넉넉해진 살림에 조금의 여유를 찾은 나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평소 관심 없던 분야의 직업들을 찾아보고 유학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등 불안감과 혼란함에 하루하루를 흘러보냈다. 바로 그때 습관적으로 찾아보던 채용공고에서 내가 평생 몸 담을 내 꿈, ‘근로복지공단’의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다. 더 이상은 생각만 하기보다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입직원 채용공고를 보았을 때 오래 전 건설현장에서

손을 다쳐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던 아버지의 경험이 떠올랐다. 그때 받았던 요양급여의 소중함과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반, 그래서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 반으로 지원했던 첫 도전은 보기 좋게 서류 탈락이었다.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거라고 위로를 해봐도 아쉬웠다. 괜스레 최종합격 공고까지 찾아보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때에 근로복지공단의 청년인턴 공고가 떴다. 두 번째 도전, 처음보다는 작은 자신감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큰 기대를 하지 말자고 서류합격 발표 날짜도 일부로 외면하고 있던 어느 날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채용 면접이라는 것을 보았고 2013년 10월 1일, 청년인턴으로써 설렘을 안고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로 첫 출근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의 인턴으로서 내 업무는 산재근로자들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일이었다. 난생 처음 담당자 옆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것에 혼자 뿌듯해하기도 하고 내 자리가 있단 사실에 으쓱하기도 했다. 처음 하는 회식과 체육행사를 하며 직원들과 친해질 기회를 얻게 되는 등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은 내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늘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월말이면 특히 더 몰려드는 휴업급여 신청서와 올리지만 해도 떨리던 전화는 내 정신을 쏙 빼놓았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던 내게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조차도 하나의 도전처럼 느껴졌다.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업무에 바쁜 직원들을 보며 어떤 분께

여쭙 봐야 할까 마음 졸이며 눈을 돌려야 했고 가끔씩 거친 언행을 하는 민원인들을 보며 가슴 철렁하는 순간을 몇 번이고 맞이했다.

목적지를 찾다

그렇게 정신 없이 흘러간 인턴 시간 중반 무렵부터 꼭 근로복지공단의 정식 일원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5개월이란 인턴기간의 끝을 세고 있던 내게, 어느 순간 끝의 ‘아쉬움’이 스며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이 나의 목적지를 찾은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 목적지를 찾은 첫 번째 과정에는 ‘일의 보람’이 있었다. 오전이면 매일 같이 전화를 하는 재해자 분이 계셨다. 서류를 넣자마자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며 휴업급여를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셨는데 가능하면 빠르게 처리해드렸으나 서류가 밀려있는 날에는 그 전화가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오늘이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감사인사 전화를 주셨을 때의 멍멍함을 잊을 수가 없다. 나에게 많은 업무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생활이고 희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화응대 멘트인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를 말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며 일에 매 순간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순간이었다.

정신 없이 서류가 밀려들고 가끔씩 민원처리에 불만을 갖는 분들로 사

무실이 소란스러워질 때가 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직원 분들은 서로 힘이 되어 주고 하나가 된다. 내가 느꼈던 근로복지공단의 모습은 직급은 있되 직급 사이에 ‘권력’은 없었다. 따뜻한 정이 흐르는 부서 분위기를 느꼈고, 그래서 꼭 그 속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두 번째 이유가 생겼다. 다시 취업준비생이 되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 “요즘은 ○○자격증을 많이 본다던데 준비 잘 하고 있니?”라고 하며 부장님께서 해주셨던 걱정과 조언의 말들, 늘 환하게 “애쓰셨어요”라고 말씀해주시던 차장님의 격려의 말. 게다가 인턴 마지막 날 나를 위해 직원 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해주셨던 선물과 정성이 담긴 편지에 나는 결국 펄펄 울고야 말았다. 보람 있는 일, 이상적인 상사 그리고 따뜻한 동료애를 5개월간의 인턴생활을 통해 느꼈고 그 순간 내 목표는 결정된 것이었다. 그 날 이후 핸드폰 메신저 프로필에 직원 분들이 써주셨던 편지를 찍은 사진을 올려 두고 오직 근로복지공단의 정식직원이 되기 위해 달렸다.

그래도 한 곳만 쓰는 것은 불안하지 않나며, 한 곳만 준비하는 내 모습을 보며 주변에서 내비쳤던 우려와 걱정이 내게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목적지를 찾은 이상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나의 노력과 간절한 마음은 5개월 뒤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채용에서 ‘합격’이라는 결과로 보답 받을 수 있었다.

버리는 시간, 채워가는 시간

“청년인턴 해도 괜찮을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란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5개월이면 몇 개의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수십 개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청년인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일 년 전 바로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청년인턴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후배를 보며 인턴기간 동안 ‘경험’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배워갔으면 하고 바란다. 그 시간들이 다시 공공기관에 오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꺾어보니 내 길이 아니었다고 다른 길을 찾아도 좋다. 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보내지만 앓았으면 하고 생각한다. 가장 두렵고 불안했던 취업의 문턱에서 5개월간 나는 평생의 직장을 찾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것이 청년인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인턴 기간을 버리는 시간으로 의미 없이 보내는 것도,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도 결국엔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간을 제대로 보낸다면, 청년인턴이라는 경력 이 하나의 자격증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진심이 담긴 ‘지원동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 말로 가장 큰 스펙이지 않을까. 

7

철도기관사를 꿈꾸었던 청년, 청년인턴제로 진짜 철도기관사가 되다!!

박○○ / 한국철도공사

“철도기관사란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수험번호 순서대로 자유롭게 말씀해보세요.” 2014년 2월, 아직 날씨가 추운 기간인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면접장 안에서 불끈 쥐고 있는 내 두 손에서 흐르는 땀의 양은 마치 한여름을 방불케 했다. 면접관님들의 표정은 면접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웠다. 밤이고 낮이고 항상 철도기관사가 되기를 꿈꿔왔던 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재빠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앞 순서 면접자의 답변이 끝나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과 말투로 대답했다. “철도기관사란……”

절대 포기하지 않은 나의 꿈

열차가 타는 곳으로 들어올 때 레일과 레일 사이의 이음매 간격에서 나는 ‘덜컹덜컹’ 소리는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항상 내 가슴을 쿵쿵거리게 한다.

중학교 때 대전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굉음을 내며 맨 앞에서 기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는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타는 곳 끝으로 달려가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기관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이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어째서 기차 맨 앞에 있는 걸까?’, ‘설마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인가?’

확실히 그때부터였다. 철도기관사가 되고자하는 나의 꿈.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의 꿈. 나는 그 꿈을 이루고자 스스로 인생의 전환점과 목표를 만들었다. 27살의 나이로 철도 관련 대학에 입학하는 것,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겠다는 것, 이것에 나의 꿈이자 목표가 되었다.

청년인턴, 쓰디쓴 고배를 마시다.

2010년부터 2년간의 철도 관련 대학에서의 생활은 실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 철도기관사면허 취득부터 컴퓨터 자격증, 각종 안전 관련 자격증까지 총 7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마법같이 찾아온 ‘한국철도공사 인턴사원 채용공고’는 철도기관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청년인턴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무섭게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직무능력 필기시험 합격까지 승승장구였다. 그때 당시 나의 자신감과 사기는 하늘을 뚫어 버릴 기세였다. 인턴사원을 선발하는 최종과정인 면접에서도 무서울 것 하나 없었다. 결국, 2012년 한국철도공사 운전분야 인턴사원 최종합격. 내 자신도 당연한 결과라 생각

했다. 하지만 그 자만심이 훗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낼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 당시 한국철도공사 인턴제도는 약 5개월간의 인턴생활을 거쳐 상위 50%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50퍼센트? 조금만 잘하면 정규직 될 수 있겠네?’

나의 자만심은 끝을 몰랐다. 그렇게나 꿈꿔 왔고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철도기관사라는 직업이 코앞에 있으니 손만 뻗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과제물이 있어도 대충대충, 평가가 있어도 대강대강, 그야말로 2012년도 한국철도공사의 인턴으로서의 생활은 ‘설렁설렁’이었다.

2012년 11월, 5개월간의 인턴생활을 마치고 최종 6급 정규직 합격자 발표. 나는 컴퓨터 모니터에 비추어진 합격자 발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을 들여다보았는지 모르겠다. ‘불합격’이었다.

그대여 청년인턴이 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끊임 없이 도전하라!

2013년도 한국철도공사 인턴사원 서류전형 광탈(광속탈락) 2012년도에 5개월간의 인턴사원 생활을 거쳐 최종 정규직 불합격 때에 비하면 아무 느낌도 없었다. 그저 다음 채용공고를 기다리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과 목표를 더욱 더 날카롭게 다듬고 있었다.

2014년도 한국철도공사 상반기 인턴사원 채용공고. 서류전형에서 합격했다. 나는 어쩔 줄 몰랐다. 계속하여 한우물 파듯이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니 합격의 기운이 다가온 것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계단 하나하나, 돌다리 하나하나 두드려 보듯이 각 전형마다 신중을 신중을 기하였다.

직무능력 필기시험 합격, 인턴사원 선발 최종 면접 합격. 2012년 이후 2년간의 도전 끝에 얻어낸 2014년 한국철도공사 운전분야 상반기 인턴사원 최종합격!

두 번째로 시작하는 한국철도공사 인턴생활은 마치 잘못 맞추어 놓은 퍼즐 조각을 다시 제대로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철도기관사가 되기 위한 나의 지식과 업무능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고, 가장 기본 중 기본을 익히며 차근차근 천천히 토대를 쌓아나갔다. 소속평가, 본부 PPT 발표, 본사 PPT 발표, 지식제안,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등. 최종 6급 정규직 합격을 위해 나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고치고 수정하고 다듬기를 반복했다. 특히나 지역본부와 본사에서 이루어졌던 PPT 발표에서는 두 번째 인턴을 경험하는 만큼 정말 잘했다며 칭찬까지 받기도 하였다.

청년인턴이여! 노력은 정말로 배신을 하지 않는다!

2014년 7월 2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에 보이는 6급 정규직 최종 합격자 발표를 마음속에 한 글자씩 새겨 넣듯이 또박또박 소리 내어 읽었다. “박·○·○·님·코·레·일·운·전·분·야·신·입·사·원·최·종·합·격·을·진·심·으·로·축·하…….”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 미소를 짓고 있는데 자꾸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았다. 그 날은 내 인생 최고의 날, 철도기관사가 되는 날이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력을 쌓는 것이 아니다. 인턴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많은 심적 부담감, 옆에 있는 동기들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감, 새로운 업무에 대한 능력 부족으로 겪는 걱정들 등, 분명 수많은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헤치고 나왔을 때의 기쁨은 청년 인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특권은 우리나라 모든 청년이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 가장 아래의 직급에 있지만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꿈을 키우고 있으며, 누구보다 강한 열정을 지니고 단숨에 제일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위치.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노력의 결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청년인턴, 한번 도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2014년 2월, 한국철도공사 인턴사원 선발을 위한 최종면접 마지막 질문.

“철도기관사란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과 말투로 대답했다.

“철도기관사란 철도의 전문가입니다. 전반적이고 다양한 업무지식을 습득하고 철도 전 분야에서 지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차안 전운행의 총책임자이며 안전수송업무의 최전선에 나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철도기관사는 바로 제 꿈이자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8

내 청춘의 온도, 열정°C

전○○/한국철도공사

올해 3월 시작해 4개월간의 한국철도공사 청년인턴 과정을 거쳐 7월 7일 사무영업 6급으로 입사해 어느새 사계절을 함께하고 있다.

Why KORAIL Internship? 도전정신으로!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은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미국 해군 조슈아 J. 마린의 이 명언을 떠올리며 지원서를 제출했던 지난 겨울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내게 한국철도공사 청년인턴 지원은 그야말로 도전 ‘그 자체’였다. 진로결정을 앞두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내게 “너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은 철도공사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당시 대학시절 공부한 중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중국정부 장학생으로 뽑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던 터라 더욱 고민이 되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내게 도전일까?’ 생각해보았다. 자문하고 보니 의외로 답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결단을 내리고 바로 코레일 홈페이지

에 접속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정보를 얻고, 자세히 알아보니 직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곳’이란 확신이 들었다. 덕분에 내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리고 주변의 추천처럼 한국철도공사가 정말 나랑 잘 맞는 회사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싶었다. 나는 한국철도공사를 향해 과감히 도전의 주사위를 던졌다.

수첩을 들고 다니며 배우는 자세로!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매 시험 단계마다 주어진 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나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분부 청량리역 소속 인턴사원이란 명찰을 달게 되었다. 돌아보면 2014년 3월은 내게 가장 뜨거운 날이 아니었나 싶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턴동기들의 열정이 초봄의 추위를 잠식시킬 정도였다.

일을 시작하고 초반에는 마음이 앞서 실수를 하기도 했고,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답답한 날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 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니 어느새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나 또한 그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알아갈수록 보이는 철도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늘 수첩을 들고 다니며 선배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 매일 역장님과의 대화시간을 가지면서 끊임 없이 질문하고 배우니, 나와 철도가 ‘찰떡궁합’처럼 맞춰가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매일 메모하는 습관은 인턴사원으로 일하는 내내 열정의 원동력이 되었다.

중화권 여행객 전문 안내원으로 거듭나다

한국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했고 특히 많은 중화권 고객들이 가평을 찾아왔다. 청량리역에서는 ITX-청춘열차를 타고 가평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나는 달려가 고객에게 상세히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했다.

한번은 코레일 중문 홈페이지 개설 기념으로 할인쿠폰을 이용해 KTX 승차권을 구입하길 원한 대만고객이 매표창구 직원과의 의사소통 미흡으로 할인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난 채 여행센터를 방문했다. 급하게 달려오는 동기의 부름에 따라가 보니 상황이 심각했다. 고객께 먼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여행센터장님과 협의해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처리해드리니 완강하게 취소를 원했던 고객의 마음이 풀어졌다. 그리고 친절하게 처리해주어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중화권 고객들과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내게 큰 보람이자 감사함이었다. 특히 중화권 고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은 설레기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큰 행복이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이 바로 나의 일이자 기쁨

일하는 나 자신이 행복하면 자연스레 상대방에게도 그 기운이 전해질 것이란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역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다보면 체력적

으로 종종 지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면서 지치는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려 노력했다. 그 덕분에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 고객이 많아 정신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자동발매기 앞에서 응대를 하던 중 말도 어눌하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와 함평으로 가는 기차시간을 알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출발시간을 결정하지 못해서 오전, 오후 시간을 전부 알려 달라하셨는데 당시 다른 고객들도 많아 할머니를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먼저 할머니께 양해를 구한 뒤, 일단 고객지원실에 가서 앉아계시라고 말씀드렸다. 다른 고객 응대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고객지원실로 가 A4용지에 잘 보이시도록 두꺼운 펜으로 열차시간 전부를 크게 써드렸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할머니의 눈가가 순간 촉촉해지셨다.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몸이 아파 함평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하여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데, 열차시간을 몰라 직접 청량리역에 방문했다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보이게 써주니 정말 고맙다고 하셨다. 그리고 칭찬 글도 올려주셨다. 칭찬 글을 올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할머니께 감동을 드렸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 사실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다. 그저 젊은 나도 몸이 좋지 않으면 하려고 했던 일을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는데 어르신들은 몸이 힘든 상황에도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직접 역에 내방을 하시니, 그 마음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시도록 도와드린 것뿐이었다. 그리고 최근 눈에 띄게 시력이 나빠지셔서 작은 글씨는 꼭 읽어달라고 부탁하시

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서 조금 더 마음을 써드린 것, 그뿐이었다.

한국철도공사와 나의 동행은 현재 진행 중!


청년인턴 활동 기간 내 다양한 평가를 거쳐 2014년 7월 7일 나는 한국 철도공사 파워루키 5기 신입사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서울본부 서울역에 발령받아 종합안내 업무를 하고 있다.

얼마 전인 10월 13일 야간근무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나이 지긋한 중국인이 다가와 부산가는 표를 끊고 싶다고 하여 매표소를 가리키며 안내를 했다. 그러자 내 어깨를 툭 치며 얼굴을 보고 말해달라고 하기에 의아하여 자세히 보니, 상대방의 입모양을 봐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이었다. 또박또박 말해주며 응대를 마치고 보니, 중국어라는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며 장애가 있는 외국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다.

앞으로 나는 한국철도공사와 오랜 기간 동행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하며 능력을 키우고, 선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아, 후에는 유라시아 대륙철도가 실현되는 데 중심역할을 하리라는 설레는 꿈이 있다.

돌이켜보면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경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오히려 단단해진 동기애는 가장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턴으로 일하는 동안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각자의 활동내용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된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첫 걸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자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늦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다시 뛰었기에 청년인턴을 거쳐 내게 지금의 이 자리가 허락되었듯, 앞으로도 나의 청춘은 365일 쉬지 않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달릴 것이다. 청춘은 열정과 숨 쉬는 한 결코 시들지 않으니까! 오늘도 나의 청춘 온도는 열정℃다.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시간선택제 일자리 · 고졸채용 · 청년인턴

2014년 12월 23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99-0007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1924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인 쇄 상일인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